

출판N

2021.12 Vol.28

nzine.kpipa.or.kr

커버스토리 : 출판인 이야기

[편집자로 산다는 것]

출판은 나의 다른 이름, 두 현실을 살아간다

어느 시대나, 책 만드는 사람은 있었다

[책 만드는 사람의 자격]

책마을 차차차

의사가 된 출판물

[서점은 항상 열려있다]

한밤중의 서점에서

작은 서점이 골목길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정책zoom

결산과 전망 - 2021 출판산업 콘퍼런스

출판가 핫&쿨

"나는 ○○○입니다"... '직업 에세이 2.0' 시대

인사이드

서울의 작은 지구촌 문화 사랑방

김수영의 생애와 문학

해외리포트

와세다의 숲에 펼쳐진 무라카미 원더랜드,

와세다 대학 국제문학관

2021 해외 출판 문학상 결산

Now
Next
News
Network

책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매체로 다양한 목소리와 연대,
연결을 지향하는 출판 전문 매거진



<출판N> 웹진
<http://nzine.kpipa.or.kr>



+ 커버스토리 출판인 이야기	[편집자로 산다는 것]	
	출판은 나의 다른 이름, 두 현실을 살아간다	1
	·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어느 시대나, 책 만드는 사람은 있었다	7
	· 이지은(출판노동자)	
	[책 만드는 사람의 자격]	
	책마을 차차차	12
	· 이수미(나무를심는사람들 대표)	
	의사가 왜 출판물	17
	· 강병철(도서출판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대표)	
[서점은 항상 열려있다]		
한밤중의 서점에서	23	
· 박수진(교보문고 북뉴스 에디터)		
작은 서점이 골목길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28	
· 노명우(니은서점 마스터 북텐더)		
<hr/>		
+ 정책zoom	결산과 전망 - 2021 출판산업 콘퍼런스	32
<hr/>		
+ 출판가 핫&쿨	"나는 ○○○입니다"... '직업 에세이 2.0' 시대	45
	· 양지호(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hr/>		
+ 인사이드	서울의 작은 지구촌 문화 사랑방	51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작은도서관	
	김수영의 생애와 문학	55
	· 박수연(문학평론가)	
<hr/>		
+ 해외리포트	와세다의 숲에 펼쳐진 무라카미 원더랜드, 와세다 대학 국제문학과	62
	· 강소영(KPIPA 일본 코디네이터)	
	2021 해외 출판 문학상 결산	73
	· 안성학(KPIPA 미국 코디네이터, 미국 파피펄 대표)	

발행인 신현수 편집인 박찬수 편집위원 김홍기, 류영호, 백창민, 이영미 발행일 2021년 12월 16일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 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대표전화 063-219-2700 E-mail nzine@kpipa.or.kr 홈페이지 www.kpipa.or.kr

기획/편집 정책연구통계센터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필자의 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판인 이야기, 편집자로 산다는 것]
출판은 나의 다른 이름, 두 현실을 살아간다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2021. 12.

1.

병실에 가족이 누워 있을 때, 한쪽 구석에서 교정지를 보던 내가 있었다. 10여 년 전 일이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을, 그런 가정의 일을 사무실에도, 저자들에게도 알리기 어려울 때였다. 수시로 드나드는 의료인을 응대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돕는 게 눈앞의 현실이었는데, 교정지 속 현실은 동서양의 몇 백 년 시공간을 넘나들고 있었다. 나는 두 가지 차원의 현실에 살고 있었다.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꼈라치면 발을 헛디디게 되는 두 현실은 팽팽했다.

‘고전은 내게 구원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문장을 몸에 새긴 저자의 글들은 고전을 읽으며 거대 공간과 거대 시간을 사는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며 시작된다. 연일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고전 덕분에 다른 꿈을 꿀 수 있었다고.

원고에서 인용한 문장이 눈길을 잡았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주인공 아드소는 말한다. “수많은 지성에서 비롯한 비밀의 보고, 그 비밀을 만들어냈거나 전승한 사람들의 죽음마저 초월한 존재”가 책이라고. 시간을 견딘 책들의 힘을 생각했다. 그리고 병동의 현실이 어떤 시간으로 건너가고 흘러갈지 알 수 없어 무기력하고 답답한 마음을 차분히 쓸어내렸다.

병원 로비의 새벽은 몹시 어둡고 조용했다. 접수와 수납 등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호출 벨소리가 끊이지 않던 낮의 자극적인 기계음, 그 속에 섞인 사람들의 탄식과 한숨, 안도의 들숨과 날숨들…… 병원의 낮과 새벽은 완전히 달랐다. 잠을 이루지 못해 몽롱한 내게는 매우 비현실적인 새벽이었다. 현실 사이에 틈입한 낮선 시공간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가끔 새벽의 그 공간을 떠올린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늠할 수 없어 막막해질 때 조용히 칼을 버리듯 마음을 다스리던 기억을 갖고 있다. 책 만들며 사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책 만들기에

마음을 다 담지 못해 허방 짚는 날에는 진실을 깨닫는다. 책의 현실을 살지 못하면 삶의 현실이 삐걱댄다는 것을. 창밖으로 차가운 눈발이 날려도 책 속에서 피어나는 봄꽃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의 두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이 출판인이다.

2.

오래전, 출판사와 인쇄소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었다. 내게 직업을 물었다가 '출판사 편집자'라는 답을 꺼내자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이런 질문은 거의 없다. 편집자들이 일에 대한 성찰이 담긴 흥미로운 책들을 직접 써서 출간하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과장되지만 출판 일을 짐작할 만한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출판인을 이슈로 한 뉴스도 나온다. 웬만한 사람은 출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 이제 좀 알게 된 상황이어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은 그래서 이렇다.

플랫폼에 글을 자유롭게 실을 수 있고, 독자 펀딩으로 책을 출간할 수 있고, 판매도 인터넷서점이나 각자의 개인 매체에서 할 수 있다. 출판사는 이제 뭐 하는 거지? 조직적으로 할 만한 일은 없지 않은가?

아니오, 여행지에서는 민박할 수 있고 또 요리를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갈한 숙소나 궁극의 맛을 낸다 싶은 식당은 삼백육십오 일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확연히 그 성격은 다르구요.

나는 독립 출판은 민박과 집밥으로, 출판사 일은 전용 숙소나 식당의 요리로 비유하며 상냥하게 답한다. 그리고 바로 아차, 이걸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 싶어서 민망했다. 어디까지나 출판 일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비근한 예를 들었다.

출판편집자는 저자의 원고를 체제와 형식을 갖춘 책으로 만들어 독자에게 전하는 매개자다. 이 '매개'에도 변화가 많다.

첫째로 저자 에이전시가 생겼다. 출판사가 저자를 설득하거나 지원하는 어떤 일들은 에이전시가 맡는다. 특별한 편집 의도를 구현할 게 아니라면, 자동 편집 시스템의 진화된 기술로 원고는 자연스럽게 체제가 잡힌다. 책이 발행되기 전 원고가 독자에게 먼저 공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런데 왜 책 만드는 사람이, 출판사가 필요한가. 이 물음에서 출판 일은 시작된다.

저자에게 어떤 주제의 원고를 제안하지? 이 원고를 책으로 왜 내야 하지?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할 수 있지? 책의 주제에 적합한 문장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떤 제작 사양으로 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나? 이런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출판인이다.

3.

성남 '안나의 집'으로 찾아가 김하중 신부를 만났다. 6년 전이다. 이탈리아인 사제로 한국으로 건너와 30년 가까이 노숙인들을 위해 매일 밥을 짓는 현장을 보았다. 조건 없이 밥을 대접하는 일, '따뜻한 밥 한 끼'의 힘을 믿으며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일을 실천하는 신부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도 숙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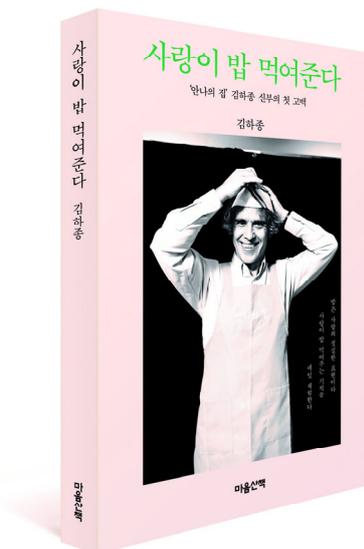
그는 사제로서 굳건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었다. 상처받고 울면서 흔들리며 해내는 일이었다. 노숙인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한다는 것, 우리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정신적인 문제를 외양만 얼핏 보고 의심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김하중 신부의 따뜻한 철학이 움직이는 세상이 거기 있었다.

신부의 삶을 책으로 내고 싶었다. 사회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논리적인 책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깨우친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었다. 기획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책을 쓸 여력도, 자신을 알리고 싶다는 욕망도 없다. 지금 당장 밥 지을 쌀을 구하고 야채를 확보하는 일이 더 다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드디어 올해 김하중 신부는 책을 내겠다고 마음먹었다. 6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바뀌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조용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소통할 책이 필요하다. 김하중 신부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고도 싶었다고 한다. 후임을 위해서도 기록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밥값이 더욱 필요해진 것도 사실이다. 책 한 권의 인세가 누군가의 밥 한 끼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김하중 신부의 소망이 책을 내게 된 동력이었다. 왜 책을 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분명했다. 『사랑이 밥 먹여준다』는 소통과 기록의 의미를 담고 세상에 나왔다.

『사랑이 밥 먹여준다』의 보이지 않는 독자의 존재감은 숫자로 표현되었다. 판매 부수나 매출이 아닌 밥공기의 숫자다. 출판인으로서 체감하는 이 책의 가치는 다른 책과 다르다. 공감과 연대의 책이라는 가치는 선명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저자의 삶이, 그 거쳐 온 세월이 빛이 되어주었다. 책이 아니었다면 더 확장되지 못했을 세계였다.



『사랑이 밥 먹여준다』

4.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너의 상상에 맡겨져 있지,
저 기러기들처럼 거칠고 흥겨운 소리로 너에게 소리치자-
세상 만물이 이룬 가족 안에 네가 있음을
거듭거듭 알려주지.

- 시 『기러기』 중에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한 메리 올리버의 대표작으로, 조 바이든이 9.11 테러 8주년 추모식에서 낭독했고, 대학생들의 기숙사 방을 장식할 만큼 널리 사랑받은 시 『기러기』가 표제적인 시선집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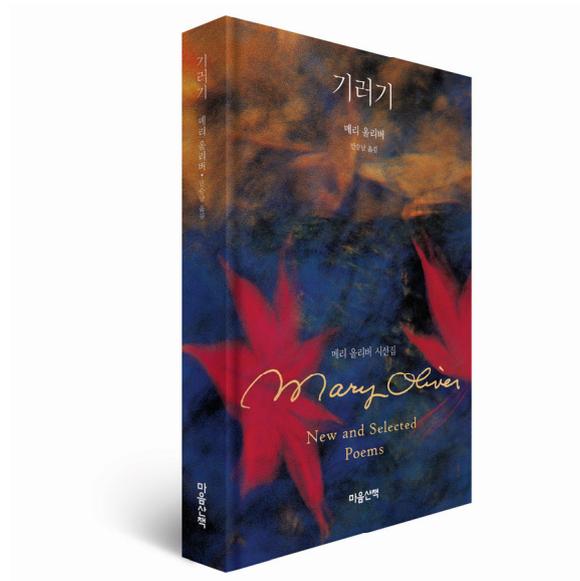
평생을 한 마을에서 은둔하듯 살았던 시인은 매일 숲과 바닷가를 거닐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 여행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발견한 자연과 예술의 경이를 표현했다.

책을 읽는 일은 어쩌면 메리 올리버의 세상 읽기와 닮은 것이다. 직접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 세상의 아름다움은 가까이에서도 발견된다.

이 시집을 만드는 것은 진심으로 감탄사를 내뱉는 일이다. 시의 경우, 문장을 다듬는 편집 일은 의미가 거의 없다. 시집을 세상에 내놓을 때 편집자는 스스로 받은 감동을 더해서 필연적인 운명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된다. 인문서를 만들 때처럼 왕성한 호기심을 품을 일도 없고, 실용서를 만들 때처럼 꼼꼼한 정보력이 앞서지도 않는다. 온몸으로 시어들의 맥락과 그 빛나는 언어 조탁에 감동하면 된다.

메리 올리버의 시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천 개의 아침』 시집을 출간하고 난 후 도착한 독자의 반응은 놀라웠다. 1935년생 시인 메리 올리버의 시적 감응은 시공간을 넘어 한국의 현 시대 독자에게 잘 전달되었다. 시인의 탐구는 오직 하나,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였다. 풀리처상을 수상한 이름 있는 시인의 삶은 소박했고 야생에 길들여진 것이었다. 시인의 시는 삶의 오라(aura)로 더욱 빛났다. 독자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시선집 『기러기』를 이렇게 빨리 출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를 좋아해서 시집을 만든다. 출판인이어서 원고를 먼저 읽는 기쁨이 컸다. 좋은 시를 '네가 누구든 얼마나 책을 읽든' 널리 많이 읽히고 싶다는 열망이 솟았다. 시집 만드는 마음에는 독자에게 전달한 '거칠고 흥겨운' 즐거움이 고여 있다.



『기러기』

5.

책 만드는 일을 지칠 줄 모른 채 36년째 하고 있다. 그 사이 활자 조판은 컴퓨터 조판으로 바뀌었고, 인디디자인을 활용해 더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유통은 디지털 대변혁에도 어리숙한 형태로 유지되어 안타깝지만 다양한 채널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전자책, 오디오북, 구독형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일에도 거리감이 없다. 책 행사나 저자 북토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간 잘 드러나지 않던 독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출판인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학자가 아니다. 칼럼을 쓰고 보도 자료를 작성해도 작가는 아니다. 출판인은 호기심으로 무장한 채 저자의 원고를 탐험하고 오류를 바로잡고 종내는 독자와 그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한다.

같은 원고로 작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개정판 작업은 예외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출판 경험이, 시간의 축적이 새로운 세계를 쉽게 규정할 수 없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초보자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데 출판 경력 햇수는 무용할 때도 있다.

내가 읽고 싶다고 책을 바로 내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돈을 지불하고 책을 구입하는 독자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고심할 항목이 많다. 그래서 출판인은 늘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다고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않는다. 최근에 만든 김하중 신부의 책과 메리 올리버 시집을 떠올려보자. 기획 과정에서 투입과 산출을 정확히 계산할 새 없이 내고 싶다는 열망이 앞서서 출간 작업이었다.

한 권도 안 팔려도(그럴 리가 있겠는가) 좋다는 심정에 내달렸다. 우리가 직접 겪지 않은 그 삶에서 흘

러나오는 단단한 통찰, 언어로 지은 집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문장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 사는 세상은 저자들이 겪고 기록한 세계와 맞닿아 있고 그에 빛지고 있다.

다시 병원의 새벽 로비의 풍경을 떠올린다. 내 삶을 이끈 것은 광포한 현실과 나란히 살아 움직인 책의 세계였다. 막막한 현실에 꿈을, 온기 어린 손을 내주던 책의 세계였다. 곧 아침이 찾아오고 햇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책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았던 순간들, 스스로 힘을 냈던 그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1985년에 출판계에 입문하여 2000년에 '마음산책'을 창업했다. 문학, 예술, 인문서를 출간하며 36년차 편집자로서 일하고 있다.

김영하, 김연수, 박완서, 이해인 수녀, 김용택, 김금희, 이기호, 김초엽 작가 등의 문학서와 요조 뮤지션, 박용만 기업가,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등의 인물, 문화 관련 책을 만들었다.

1992년 문단에 데뷔하여 시집 『비밀을 사랑한 이유』, 『나만의 것』을 출간했다. 편집자로서 일한 기록 『편집자 분투기』와 독서 기록 『책 사용법』, '마음산책' 20주년을 기념하는 인터뷰집으로 스무 문인과 대화를 나눈 『스무 해의 폴짝』 등 저서가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 서울출판예비학교(sbi) 원장, 2018 책의해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www.facebook.com/maumsanchaek

leaf@maumsan.com

[출판인 이야기, 편집자로 산다는 것]
어느 시대나, 책 만드는 사람은 있었다

이지은(출판노동자)

2021. 12.

- “편집자 하지 마세요”

예비 출판인 시절, 신촌에 있는 출판 관련 아카데미를 수강 신청했다. 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득 품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로 가득한 공간. 강의 첫 시간에 한 출판인 강사는 이 말부터 꺼냈다.

“편집자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의아했다. 아직 첫발을 떼기도 전인 후배들에게 저런 말을 내뱉는 의도는 무엇인가. ‘내 자리 빼앗지 말라’는 밥그릇 싸움의 일종일까. 그 말 덕분인지 아니면 업계 현실을 미리 파악했는지, 수업이 하루 이틀 쌓여가면서 “저는 그냥 독자로 남을래요”라고 말하며 청강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반면 내 경우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보다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 큰 상태라 그의 조언을 귀에 담지 않았다. 그럼에도 종종 불안과 좌절로 가득해 ‘난 편집자 그릇이 아닌가 봐’ 중얼거리던 신입의 나는 종종 그의 말을 떠올렸다.

지금은 안다. 그는 이른바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이다. ‘출판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눈이 반짝이는 이들에게 이렇다 할 청사진을 제시해줄 수 없기에 한 말일 수도 있다. 어쩌면 나중에 들을지 모를 ‘왜 그때 말리지 않았느냐’는 원망을 사전에 차단하려던 자기 방어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출판인이라면 누구나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말을 수시로 듣는다. 이 문장은 신입 시절 내게 선배들이 “지금이라도 다른 일 찾아 봐. 넌 젊잖아”라는 말과 함께 해준 충고이고, 그 선배 또한 과거에 다른 선배에게서 귀동냥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표현이다. 왜 이런 낚두리를 구전하는가. 새로 유입되는 이들에게 전해줄 조언이 고작 이런 자조 섞인 말밖에 없는 것일까.

출판인들이 자꾸만 이 말을 되뇌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말로 출판 산업이 하향세이기 때문이다. 12월

에는 송년회를 즐기느라, 1월에는 신년회를 준비하느라 책이 안 팔리고, 2월에는 달이 짧아 안 팔리고, 3월에는 새 학기라 안 팔린다. 봄에는 벚꽃 구경 가느라, 여름에는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느라, 가을에는 단풍 보러 산에 가느라, 겨울에는 집에 틀어박혀 쿨 까먹으며 넷플릭스 보느라 책을 안 읽는단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읽기에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8분이라고 한다(2019년 통계청 기준). 양치에만 하루 세 번씩 9분을 할애하는데, 이마저도 못한 수준인 것이다. 독서인구가 해마다 줄어오니 초판 제작부수도 함께 쪼그라들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초판 제작부수가 3,000부 내외였는데, 요즘에는 2,000부, 심지어 1,500부를 기본 부수로 할애하는 출판사가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아무래도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말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발을 빼고 얼른 다른 업계로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마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많은 일을 대체하는 근 미래에 어떤 직업도 ‘호시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너도 나도 직업명 끝에 ‘사(士)’ 자를 달고 싶어 하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지금은 변호사나 판사, 회계사까지 조만간 사라질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된다.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어렵다면, 정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책 만드는 일을 처음 선택했을 때의 마음, 선배들이 “편집자 하지 마세요”라고 벽을 쳐도 꺾임으로도 듣지 않던 그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는, 우리는 왜 이 사양 산업에 굳이 뛰어들어 지금도 열심히 책을 만들고 있는가. 그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 그럼에도 계속 책을 만드는 이유

경력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신입 편집자들이 작성한 이력서들을 접할 기회가 종종 생긴다. 대부분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고, 책이 좋아 책을 만드는 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류의 책을 향한 애정을 담은 이야기와 출판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하다. 일정 부분 사실일 것이다. 책에 관심과 애정도 없으면서 출판계를 직업의 장으로 상상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책을 좋아한다’는 출판계에서 일하는 ‘기본 조건’일 뿐이다. 이는 독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당연한 말’인 것이다. 더불어 업에 대한 지나친 경외심은 일하는 나를 지켜주지 못할 확률이 높다. 신입 딱지를 붙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판계에 들어온 이는 보통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중얼거린다. “어떻게 ○○○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사장이, 업계가, 저자가 이럴 수 있지?” 배신감에 부르르 떨며 업계를 떠나는 이도 종종 만난다. 반대로 회사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애들은 지구력이 부족해. 고심해서 뽑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한눈 팔아버린다니까.” 안타깝다. 지원자와 업계 현실의 부조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수많은 원인이 산적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출판을 경외시하는 자세’의 문제라고 본다.

흔히 출판을 일종의 ‘문화 산업’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합성어로, 국립국어원의 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공유·전달되는 생활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일컫는 ‘문화’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인 ‘산업’이 만난 행위다. 신입 시절에는 전자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후자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문화를 다루기도 하지만, 문화가 담긴 책을 ‘팔아야’ 하는 직업이다. 심하게 말하면, 읽히지 않으면 책이 아니라 종이일 뿐이다.

종종 ‘문화 산업’이라는 말로 출판의 정체성을 거창하게 포장하는 일부 출판사 사장들도 만난다. 이 말은 스스로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쥐꼬리만 한 월급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부하면서 돈도 버니 얼마나 좋아?” 이 말은 신입 시절 전 직장 사장에게서 직접 들은 표현이다. 편집자 스스로가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면 몰라도, 월급을 주는 사장이 신입에게 건네기에는 부적절하다. 게다가 그는 40여 년 넘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출판 관련 협회 이사진에 늘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이처럼 출판을, 책을 경외시키는 사장과 신입 편집자가 만난다면? 십중팔구 야근과 특근으로 점철된 최악의 노동환경과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급을 주고받을 확률이 높다. 참고로 그는 “편집자가 무슨 노동자냐”라며 노동절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편집자가 노동자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 노동절에 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봤던 것일까.

나는 ‘문화’라는 단어의 거창함을 믿지 않는다. 열악한 노동환경, 출판노동자의 90퍼센트가 여성임에도 대부분의 상사는 남성이 꿰차고 있는 업계 현실, 10여 년째 도통 오르지 않는(오히려 떨어진) 외주비, ‘경험 많은 신입’만 바라고 가능성 많은 신입을 뽑아 훈련시키는 투자는 꺼리는 업계 관행까지, ‘문화’라는 말 뒤에 숨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를 계속 일하게 하는 이유는 그 문화 안에 없다.

-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계속 출판계에서 일하게 하는가.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을 중얼거리는 사양산업에다가 열악한 노동환경을 앞두고도 굳이 ‘책밥’을 먹겠다며 오늘도 합정으로, 강남으로, 파주 출판단지로 출퇴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경우에는 직업적 소명의식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덕이 컸다. 아무리 책이 안 팔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 책을 8분밖에 읽지 않는다고 해도, 서로를 믿으며 한 권 한 권 쌓아나가는 편집자가, 디자이너가, 마케터가, 제작자가, 저자가 있다. 우리는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버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위해 성심껏 일하고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서로를 믿으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는 과정이 즐겁고, 이것이 책이라는 물성으로 탄생하는 결과가 마음에 든다. 종종 각자의 위치와 상황 때문에 언성을 높이며 자기주장을 할 때도 왕왕 생기지만 책이 출간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의기투합한다. 이 느슨한 연대가 ‘그럼에도 책을 만드는 이유’다.

모 그림 작가와 함께 책을 만들 때 이야기다. 회사에서 요구한 출간 일정은 하루 이틀 다가오는데, 작업 속도는 한없이 더뎠다. 자꾸만 그에게 안부를 빙자한 원고 독촉 전화를 걸었다. 그 통화에서 원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에 내 전화번호만 떠도 상대는 곧바로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 작가는 담당 편집자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던 그는, 그림 작업이 끝나갈 즈음 디스크 문제로 병원을 수차례 오갔다. 결국 책은 일정에 맞게 잘 출간되었으나, 내 입장 때문에 그분을 궁지에 몰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다. 왜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책만 보았는가. 지금 생각해도 그에게 미안하다.

지금은 웬만하면 상대에게 독촉하지 않는다. 책이 제때 나오는 것보다 동료와 나의 안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정 등으로 힘들어하는 상대를 보면 반드시 이렇게 말해준다.

“일정 조정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가능한 만큼만 해요.”

상대를 몰아붙이지 말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속담처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마감은 오고 책은 나온다. 게다가 편집자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웬만하면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물론 잠수 타버리는 저자도 종종 존재한다지만, 그마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지. 어른다운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나도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으니까.

- 읽는 인간을 발견하기 위하여

다른 업계와 달리 출판이 ‘문화 산업’으로 불리는 이유는 일부 사장들의 편의대로 노동력을 싼값에 쓰기 위함이 아니다. 책끼리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 냉장고의 판매율과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엘지 냉장고 관계자는 긴장하겠지만, A 출판사의 책이 잘나가면 B 출판사는 부러워할지언정 긴장까지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A 출판사 책이 잘나감으로써 B 출판사 책도 판매될 여지가 생긴다. 한 권의 책이 곧 다른 책을 부르기 때문이다. 책 한 권을 읽고 감응한 사람은 분명 또 다른 책을 고르기 위해 서점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캐럴라인 냅의 『욕구들』(2021, 북하우스)을 재미있게 읽었다면 그의 또 다른 책 『명량한 운둔자』(2021, 바다출판사)를 찾아 읽고, 나아가 그의 친구인 게일 콜드웰이 냅의 죽음을 맞이하며 쓴 에세이 『먼 길로 돌아갈까?』(2021, 문학동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마련이다. 이렇게 때문에 출판의 파이는 책의 발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커져야 한다. 출판계에서 공공도서관 증진을 추진하는 이유다.

하루에 8분만 책을 읽는 사람이라 해도, 한 문장에 감응했다면 그는 분명 ‘읽는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때문에 출판계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한다. 책값을 후려치는 경쟁으로 나아가간다면 책의 다양성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출판과 경쟁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다.

아무리 출판계가 사양 산업이고 출판계에 위기가 닥쳤다고 외쳐도, 그 안에서도 책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 존재해왔다. 내게 “단군 이래 최대 위기”를 운운한 선배도, 그 선배의 선배도 결국에는 책밥으로 먹고살았다. 인공지능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또 다른 콘텐츠의 바다로 많은 이들이 전향한다고 해서 과연 책이 사라질까? 그런 일은 요원하다고 본다. 인간에게 호기심과 배움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책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편집자의 일 또한 계속될 것이다. 책의 형태와 업의 내용은 바뀔 수 있다. 과거에는 교정교열과 원고수급이 편집자의 제1 목표였다면, 지금은 기획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된다. 그렇다 해도 편집자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콘텐츠에 담긴 문화를 잘 포장해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 동료들과 하나의 결과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독자에게 발견되는 것. 이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계속 책밥을 지어 먹을 것이다.



이지은(출판노동자)

13년차 출판노동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책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 '인생은 재능이 아닌 노력'이라는 좌우명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분투했다. 덕분에 재능 없이 노력으로 쌓은 13년의 출판 경력은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공존한다. 한 권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 동료나 저자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 출판이 재미있어서 이 언저리에 계속 남고 싶다. 지은 책으로는 『들어 봐, 우릴 위해 만든 노래야』, 『편집자의 마음』이 있다.

1229ana@naver.com

@1229ana

[출판인 이야기, 책 만드는 사람의 자격]

책마을 차차차

이수미(나무를심는사람들 대표)

2021. 12.

대학을 졸업하던 해 웅진출판사(현 웅진씽크빅)에 입사하여 잠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 30년 넘게 출판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첫 직장이 편집자가 되어 일한 마지막 직장이기도 했고, 거기서 배운 경험으로 8년 전 “나무를심는사람들”을 차려 출판사를 꾸려오고 있으니, 이 일이 내게는 말 그대로 천직이라 할 만하다. 요즘에야 한 생애 동안 여러 번의 직업을 거치는 게 별난 일도 아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초고령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인의 모습으로 부각되기도 하지만, 3, 40대 내가 한창 일할 때만 해도 ‘천직’은 긍정적인 의미가 큰 말이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 왔다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은 천직인 걸까? 일단 외형적인 조건에서 30년이란 시간은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같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면 3년을 채우기도 힘들었을 테니. 그렇다면 나의 어떤 특성이 책 만드는 일과 잘 맞았던 걸까. 나는 왜 이 일을 욕심을 곧 바라보는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출판의 어떤 매력이 나를 지금껏 이끌었던 걸까. 원고 청탁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때는 어쩌면 이번 기회에 스스로 이 대목을 정리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무의식이 발동했던 것 같다.

인연이란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불교에서는 ‘인’에 해당하는 씨앗이 ‘연’에 해당하는 땅과 기후, 사람의 보살핌 등을 받아 결실을 맺는데, 이 ‘인’과 ‘연’이 잘 어우러져야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씨앗이 좋다고 반드시 결실이 좋을 수 없으며, 조금 부실한 씨앗으로도 ‘연’의 조건을 바꾸어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된다.

편집자와 저자가 만들어 가는 관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편집자가 어떤 기획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저자인데, 기획을 내용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의 대부분을 저자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연출로 비교하면 편집자에게 저자는 주연 배우라 할 만하다. 누구를 주연으로 캐스팅하느냐에 따라 드라마의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를 솔하게 볼 수 있다.

나는 한 저자와 두 권 이상의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편집자라면 인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책이 가능한 것은 기획 역량이 뛰어나 저자를 설득할 수 있어서였을 수 있고 어쩌면 운이 따라줬을 수도 있다.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데는 실력보다 운이 더 좋아야 한다는 ‘운칠기삼(누군가는 ‘운구기일’이라고까지 했다)’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그런데 첫 번째 책을 위해 쏟은 편집자의 정성과 책임 없이 같은 저자와 두 번째 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결과가 좋으면 두 번째 책으로 가기가 더 쉽겠지만, 결과가 기대보다 못한 경우에도 편집자가 책에 쏟는 정성과 열정을 보고 관계를 지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적인 관계에선 능력이 더 우선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성과 책임으로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쉽지 않다.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능력주의’의 여파가 출판이라고 피해 가진 않겠지만 나는 여전히 정성과 책임으로 지속되는 관계의 힘을 믿는다.

처음 웅진에 입사했을 때 내가 맡은 일은 중학교 국어 월간학습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국어 교사가 써온 원고를 편집해 매달 잡지처럼 마감하는 일은 편집자 초창기에 기본 편집 업무를 습득하기에 맞춤이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량이 숙달되자 매달 똑같이 반복되는 공정이 따분하게 여겨지는 시점에 온 좋게 단행본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다. 방문판매로 학습지와 어린이전집을 팔면서 사세를 막 키워가고 있던 웅진이 유통채널을 서점으로도 확장하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외부에서 단행본 경력자를 채용해서 시작해야 마땅한 일을 어찌된 일인지 당시 편집국장님은 새내기인 나에게 단행본 일을 맡겼다. 추측컨대 내가 맡은 국어 학습지에 쉬어 가는 코너로 들어가는 짙막한 읽을거리들이 재밌게 보여서, 그런 감각으로 단행본 기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그 또한 내 능력이었다고 하기보단 해당 필자의 감각이었다. 이십대의 난 역수로 운이 좋았던 거였다.

출발이 이렇다 보니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단행본 필자들이 전집과 학습지 전문인 출판사에 원고를 선뜻 줄 리가 없었고, 뽕뽕한 현금회전력을 갖춘 회사 규모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겨우 3년차 학습지 편집자 출신인 나에게 경험 있는 선배 하나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단행본 기획은 너무 힘든 과업이었다. 몇 달의 시장 조사와 전문가 면담 등을 하며 발로 뛰어 내린 결론은 처음 웅진 단행본 기획의 방향이 청소년 출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동 전문 출판인 웅진이 곧바로 일반인 대상의 단행본을 하기보다는 중간 단계의 청소년을 거점으로 하여 차츰 일반인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으로 회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초창기 웅진의 전집과 학습지를 본 아동들이 이미 청소년이 된 시기적인 면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런 배경에서 박완서 선생님의 장편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펴낼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을 위한 성장소설이라는 기획이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대림동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처음 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거실 바닥에 함초롬히 무릎을 세우고 앉으셔서 조용히 듣고만 계셨던 야원 선생님의 모습이 액자 속의 사진처럼 선명하다. 남편과 아들을 앞세운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외출도, 밖의 사람을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던 때였다. 아마도 선생님은 참혹한 전쟁도 죽음도 없이 평화로웠던 유년의 시절, 개성 박적골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원고가 나오기까지 내가 했던 역할은 주기적으로 선생님을 방문하여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일이 전부였다. 갈 때마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 주시고, 원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특유의 개성 발음을 살짝 섞어서 조곤조곤 말씀하셨던 모습이 생각난다. 특정 장면을 설명하실 때는 마치 글로 묘사하는 듯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서 세밀한 기억력에 감탄하곤 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반응이 좋아 예정에 없었던 후속작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까지 내게 되면서 선생님과 만나는 기간이 길어진 것도 큰 행운이었다.

박완서 선생님이 마흔의 나이에 여성동아 장편 공모에 당선되면서 등단하게 된 일은 잘 알려져 있다. 당선이 확정되고 동아일보사에서는 본인 인증을 위해 기자 두 명을 당시 선생님이 살고 계셨던 신철동 집에 보내는데, 둘 중의 한 명이 지금은 가수 이적의 엄마로 더 잘 알려진 여성학자 박혜란 선생님이 다. 여성동아 기사를 하다 둘째 이적을 낳고 퇴사 후 10년 가까이 세 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를 하다 박완서 선생님처럼 마흔이 되던 해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에 들어가 여성학자로 인생 후반부를 시작하셨다. 셋째 아들까지 대학에 들어간 해, 세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에 담았는데 이 책 또한 나의 편집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다.

잘 아는 외부 기획자를 통해 박혜란 선생님과 계약이 진행되고 초고가 완성되었을 쯤 저자에게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획자와 원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게 발단이 된 듯했다. 기획자의 양해를 구하고 그때부터 내가 전담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당시 학부모교육운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셨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긴 생머리를 올백으로 넘겨 질끈 묶은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었다. 그때 나도 다섯 살 큰아이를 키우고 있던 때라 저자가 책에서 강조한 ‘육아에서 아이를 믿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교육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을 내고 난 다음해 퇴사를 하게 되어 선생님과 인연이 끝나는가 했는데, 해외 체류를 끝내고 웅진에 재입사하게 되었다. 그때 선생님은 여성신문에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나이드움에 대하여”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계셨다. 단행본으로 엮어 보자는 나의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 주셔서 두 번째 책으로 이어졌고,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7권의 책을 함께 냈다. 첫 책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네 번의 개정판을 내면서 25년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육아바이블이 되었으니 박완서, 박혜란으로 이어진 내 편집 여정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하다.

얼마 전 종영한 TV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오랜만에 본방사수하며 보았다. 정글 같은 도시 생활에 치인 치과의사(신민아 분)가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 바닷가를 찾았다가 그곳에 아예 병원을 차리고, 마을의 온갖 잡일을 아르바이트로 메꾸며 사는 의문의 흥반장과 얽히고설키다 사랑에 빠진다는 흔한 로맨스였다. 그럼에도 다음 회차를 기다려 가며 드라마에 열광했던 것은, 그림 같은 바다마을의 풍경과 매회 천진한 어린애 같은 미소를 날려주는 신민아의 보조개에 흘러 온갖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오래 잔상이 남는 것은 여주인공의 상큼한 미소도 예쁜 바다도 아니었다. 그동안 이름조차도 알고 있지 못한 두 조연들에게 유독 관심이 가면서 그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관심 깊게 보고, 필모그래피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식당주인으로 분한 이봉련과 신민아의 단짝 친구이자 간호사를 맡은 공민정이었다. 이봉련은 이혼 후 아들 하나를 키우며 야무지게 식당을 운

영하면서 마을의 반장까지 맡고 있는 이른바 ‘촌데레’이다. 신민아가 마을에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힘들고 외로워할 때 따뜻한 성계국을 끓여 마음을 달래 준다. 공민정은 하는 연애마다 차여 상처투성이지만 특유의 현실감각과 낙관성으로, 신민아가 헛똑똑으로 직진하려 할 때마다 사실을 직시하게 해준다. 얼마나 찰떡같이 이 역할을 소화해 냈던지 최근 본 영화에서 공민정이 나왔을 때 이 드라마에서의 연기가 오버랩되면서 역시 명품 조연이구나 다시 감탄하게 되었다.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두 조연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것은 두 사람의 역할이 편집자와 많이 닮았다고 여겨서이다. 흔히 편집자를 프로듀서에 비유하곤 하는데, 나는 원고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편집자가 하는 일은 두 조연의 역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스펙을 갖춘 엘리트이지만 슬럼프에 빠지게 된 신민아에게 살 곳과 병원 자리를 물색해서 정착하게 도와주는 식당주인 이봉련처럼, 편집자도 글감옥에 빠지게 되어 때로 움푹달삭 못하게 된 작가들이 다시 글을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내고, 토론 상대가 되어 주고, 가끔은 없는 솜씨라도 발휘해서 성계국을 끓이곤 한다. 저자의 의욕이 지나쳐 경계를 넘을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하게 돕는 일도 편집자의 몫이다. 이때는 친구 신민아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크하고 위트 있게 눈웃음을 날리며 꼭 필요한 말을 던지는 공민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초고를 접하는 순간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로 설레는 시간이다. 어떤 시간을 거쳐 원고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왔기 때문이다. 편집의 여러 공정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저자가 의도한 바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불특정 독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의 질서를 만드는 과정은 내가 가진 기본기를 바닥부터 끌어내야 하는 과정이다. 글의 구성을 바꾸거나 강약을 조절하여 저자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와 배경지식 없이 이 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관점과 판단이 늘 정확할 수는 없어서, 때로 저자와 충돌하는 일도 생긴다. 상충되는 의견들을 수용하고 보완하면서 다듬어져 나온 책의 반응이 좋을 때 느끼는 짜릿함으로 다음 책을 또 준비하는 것 같다.

모니터로 원고 보기가 점점 힘들어 얼마 전 태블릿을 장만했다. 거치대에 태블릿을 올리고 책 보듯이 원고를 보니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얼마 안 가 눈이 침침해지면서 피로감이 몰려온다. 앞으로 얼마나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되묻는 순간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엔 큰아이보다 어린 필자와 계약을 했다. 조연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가 많아질 거라는 예감이 든다. 그날이 언제일지 아직 모르지만 마지막 책을 만드는 날까지 기꺼이, 행복하게 나의 천직을 완수하고 싶다.



이수미(나무를심는사람들 대표)

웅진지식하우스 대표, 웅진씽크빅 단행본개발본부장을 거쳐 현재는 나무를심는사람들에서 청소년을 위한 책들을 주로 출간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장르의 다양한 책들을 기획하고 편집해 왔지만, 맨 처음 단행본 편집자가 되어 청소년소설을 냈던 것이 다시 청소년도서를 출판하게 된 소중한 인연으로 여겨진다.

soomi504@gmail.com

[책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책 만드는 사람의 자격]

의사가 웹 출판을

강병철(도서출판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대표)

2021. 12.

의사인데 환자를 보지 않고 출판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모두 흥미로워한다. 살기는 캐나다에 사는데 출판사는 한국에 있다고 하면 흥미를 넘어 신기해한다. 출판사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2010년경 밴쿠버의 한 도서관에서였다.

2005년 12월,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다. 서귀포에 있던 소아과는 환자가 많아 감당을 못할 정도였다. 보호자들은 나를 신뢰했고, 제주도 내에서는 명사 대접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난하게 자라 평생 머리를 짓누르던 돈 걱정에서 해방되니 살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은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원래 교수가 되고 싶었으나 부친이 병을 얻는 바람에 집안을 떠맡게 되어 개원을 선택했었다. 일차 보건 의료는 보람이 있었지만 지적 자극이 부족했다. 평생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대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리라 결심했다. 그런데 영국 여행을 갔다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자유롭게 다양하며 문화적 전통이 풍부한 유럽에 살아보고 싶었다. 여러 가지로 길을 찾아보았으나 현지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2년여 시간을 공들인 끝에 영국 소아과 의사 면허를 딴 것이 2005년 12월이었다.

2006년 12월, 모든 것을 잃었다. 영국에 가서 살 거라고 전지훈련(?) 삼아 아이들을 싱가포르로 유학 보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큰 아이의 정신질환이 발병했다. 유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불러 들었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다. 마음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데 어디서도 양질의 정보를 구할 수 없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라는 책을 원서로 읽었다. 목마르게 원하던 모든 정보가 거기 있었다. 몇 번을 읽고 나서 번역하기로 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을 도와야 했다. 주요 정신병 환자가 100만이 넘으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잘 아는 출판사 대표님을 설득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초판도 다 팔리지 않았다.

2008년 3월, 병원을 접고 밴쿠버로 떠났다. 우선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야 했다. 아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왕따가 심해 견디기 어려웠다. 차별과 경쟁이 덜한 캐나다에서 아이의 학업을

이어가며, 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영국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그때 큰 실수를 했다. 한국을 떠나면서 선불리 투자를 하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환율이 끝 간 데 없이 치솟았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다. 가진 재주라고는 환자 보는 것과 번역뿐이었다. 상업 번역 시장에 뛰어들었다. 1년도 안 되어 기반을 잡았다. 모두가 나를 원했다. 고된 일이었지만 수입은 어지간한 봉직의만큼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에 살며 번역으로 가솔을 부양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가 현실이 되었다. 스스로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어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번역을 하면서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잠잠이 쉬는 시간에 서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 흥미를 끄는 책이 많았지만 역시 건강 도서 섹션에 눈이 갔다.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너무나 부러웠다. 아주 희귀한 병도 의사가 쓴 지침서와 환자가 쓴 투병기가 나와 있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사서를 찾아와 정보를 요청하면 좋은 책을 검색해 다른 도서관에 있더라도 반드시 구해 주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의료 접근성이나 의료 이용 관행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선정적인 방송이나 이웃집 사람(!)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정보를 얻기보다 책을 통해 총체적 정보를 얻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속도가 빠르다고 지식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로 일할 때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겹쳤다.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여기서 뭐하니?' 행복을 찾아 이역만리로 떠나왔는데, 조그만 성공에 취해 또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다. 의사이자 번역가가 되었으니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출판사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국에 출판사를 한단 말인가? 번역은 할 줄 알아도 제작이나 유통, 마케팅은 백지 아닌가? 책이 그렇게 안 팔린다는데... 그때 정신 질환 책이 떠올랐다. 의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은 책을 내보고 싶었다. 다른 출판사에 민폐를 끼치기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일단 네이버와 다음의 출판 카페에 가입하여 게시판의 글을 꼼꼼하게 읽는 일부터 시작했다.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다. 카페 가입 인사에 적은 간단한 프로필을 보고 제작 실무에 밝은 분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선생님은 캐나다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가 한국에서 콘텐츠를 책으로 만드는 식으로 동업을 하면 어떨까요? 동업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출판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다. 동업이 깨지는 이유가 돈 문제 말고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았고, 돈 문제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순진한 착각이었다. 동업을 가로막는 요소는 백만 가지쯤 되었다. 무엇보다 꿈이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소득이 있었다. 출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파악했고, 외국 출판사와 직접 접촉하여 계약을 이끌어내면서 저작권과 출판 계약에 관한 기본 개념도 알게 되었다. 실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셈이었다.

2013년 11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책을 만듭니다."라는 모토로 출판사 "꿈꿀자유"가 탄생했다. 당초 목표는 희귀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책을 내는 것이었다. 그런 책을 내자면 회사가 자력으로 굴러가야 했다. 일단 육아서에 집중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여력이 생길 때마다 내고 싶은 책을 한 권씩 내자는 전략을 세웠다. 육아서를 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짜 과학, 유사 과학이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공부를 시작했다. 실력을 키운 덕에 "안아기" 사태가 터졌을 때 조목조목 과학적 근거를 들어 비판할 수 있었다. 약간의 이름을 얻어 내 자신의 육아책을 쓰고, Yes24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스"에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다. 저술가로서, 칼럼니스트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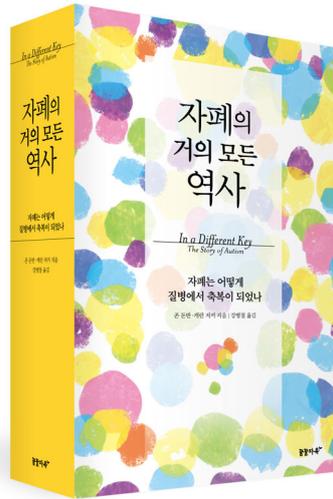
조금씩 경력이 쌓였으나, 출판사의 경영 상태는 악화일로였다. 규모가 작은 데다 번역을 직접 한 덕에 버텼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업 번역과 출판 번역을 병행하기가 점점 힘들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2015년 여름,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한국을 강타했다. 의료 체계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다. 1인 출판에 가까운 회사를 겨우 꾸려가는 주제에 책임감을 느꼈다. 책을 점점 안 읽는다지만, 세상은 책을 읽는 사람이 끌고 간다. 사회에 절박한 문제가 닥쳤을 때 출판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믿는다. 의사이자 출판인인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내야 하지 않을까? 전염병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 발견한 책이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이다. 솔직히 버거웠다. 너무 길고 방대했으며, 당시 경영 상태로는 제작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원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 선인세를 낮춰 달라고 설득하고, 글자수를 박박하게 채운 포맷으로 제작비를 줄여서 겨우 냈다. 불발이었다. 그나마 수익학과와 환경계에서 입소문을 탄 덕에 조금씩 팔리긴 했지만, 경영을 호전시키기는 역부족이었다.

2018년 늦가을, 알마 출판사의 의뢰로 번역한 『뉴로트라이브』가 출간되었다. 자폐의 역사 속에 담긴 기막힌 사연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널리 알리고 싶어 전국을 누비며 10여 차례 북 토크를 열었다. 장애를 지닌 자녀를 돌보며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위대한 부모들을 만나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다. 어떻게든 신세를 갚고 싶었다. 책 만드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역시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듯했다. 매년 한 권은 장애에 관한 책을 내리라 생각하며 첫 작품으로 고른 것이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다. 860쪽짜리 대형 프로젝트였다.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2019년에는 강연차 천안에 갔다가 『뉴로트라이브』를 감명 깊게 읽으셨다는 부부를 만났다. 알고 보니 정신질환으로 최근 아들을 잃은 분들이었다.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아이와 너무 비슷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 쌓인 회한을 털어 놓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캐나다에 돌아가서도 두 분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식을 잃고 살아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헤아릴 길이 없었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에 생각이 미쳤다. 출판사를 시작한 뒤에도 계속 복간을 생각했지만 회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을 기려 이 책을 복간하면 어떨까?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젊은 영혼도 저세상에서 환히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두 분은 흔쾌히 동의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뭔가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안을 주셔서 너무 기쁩습니다! … 그 비용을 조건 없이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2020년 초, 돈이 떨어졌다. 출판사를 열면서 아내에게 1억을 까먹으면 그만두겠노라 약속했었다. 첫해에 6천, 다음 해에 2천을 까먹었다. 2천이 남은 상태로 5년을 버텼는데 이젠 돈이 없었다. 워낙 운영비가 들지 않는 회사이므로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었다. 자폐와 정신질환 책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거기까지 내고 그냥 접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 책을 내도 반응이 너무 없었다. 7년을 했는데 한 달 매출이 2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정도였다. 그냥 내려놓고 쉬다고 생각하니 너무 흥분해서 눈물이 났다. 그러던 차에 책을 내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딱 잘라 거절했다. 지금 문 닫을 공리를 하는 판국입니다만… 상대는 끈질겼다. 그간 재활의학에서만 논의되었던 장애 문제를 공공의료 차원으로 확대시킬 계기를 마련해보고 싶다고 했다. 허허, 이것 참…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하려면 애초에 출판은 뭐 하러 시작했나 싶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너 돈 있냐?’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눈을 질끈 감았다. “에라, 모르겠다. 합시다!” 밤새 후회했다. 마누라한테는 뭐라고 한단 말인가!

한 달쯤 지나자 대역병이 돌았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가 불티나게 나가기 시작했다. 그해 매출이 지난 7년 매출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다. 2021년에 출간한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는 복편

당에서 1,400만 원이 넘는 자금이 모였다. 당사자 부모의 도움으로 복간된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는 입소문을 타며 돌풍을 일으켰고, 정신질환 가족지침서로 자리를 굳혔다. 이 글은 한국에서 쓰고 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가 롯데출판문화상 번역 부문에 선정되어 지원금 2천만 원을 받았기에 시상식에 참여하려고 한국에 왔다. 불과 2년 사이에 내고 싶은 책을 내는 데에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에 관한 책, 올바른 의학 정보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책을 계속 낼 생각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원고 청탁서는 “책 만드는 사람의 자격”을 주제로 써달라고 했다. 나처럼 만년 출판 초보인 사람이 그런 걸 운운할 자격은 없을 것 같다. 그저 선한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꿈을 버리지만 앓으면 언젠가 실현된다고 믿을 뿐이다. 출판 시장은 어렵다. 이익을 좇아 말도 안 되는 책,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책도 많이 나온다. 남에게 뭘 충고할 생각은 없고, 나만은 부박한 시류에 휩쓸려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원칙대로 살아왔고 손해도 보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리라. 사실 출판계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여 양질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만이 출판도 살고, 사회도 사는 길이다.



강병철(도서출판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대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과 전문의로,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며 번역가이자 출판인으로 살고 있다. 도서출판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의 대표다. 『특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를 썼고,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등 30여 권을 우리말로 옮겼다.

www.facebook.com/jason.kang.37

nakcl@hanmail.net

[출판인 이야기, 서점은 항상 열려있다]

한밤중의 서점에서

박수진(교보문고 북뉴스 에디터)

2021. 12.

미드나잇 북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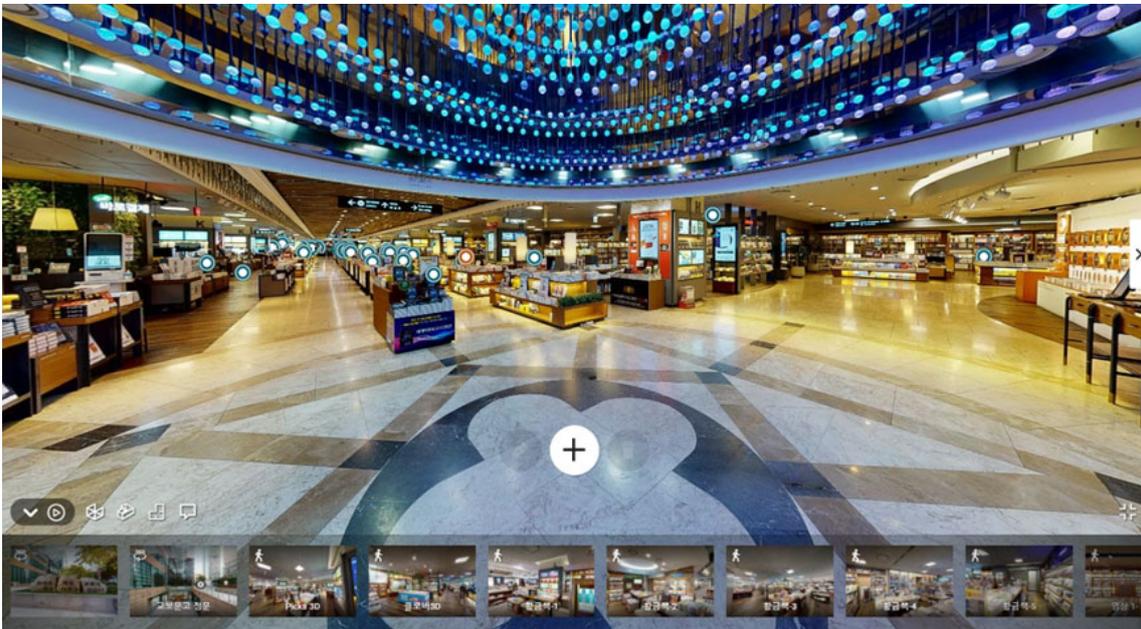
조금 전만 해도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북적거리는 기척이 가득하던 서점은 밤 10시가 지나자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서점 출입구에는 셔터가 내려졌고 직원들도 모두 퇴근했다.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드넓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는 딱 세 명만 남아있을 예정이다. 네,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예요!!!



한밤중의 서점

'한밤의 서점에서 (대충) 나 홀로'라는 낭만적인 사건은 별로 낭만적이지 않은 메타버스에서 시작되었다. 요즘 메타버스나 가상 스토어 같은 단어를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알아보니 의외로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접근이 어렵지 않은 거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것이 인지상정 이랄까, 대형서점의 자존심이자 책임감 같은 거랄까. 이런 감언이설로 회사를 설득해서 광화문점 전체를 3D 촬영해 매장 전체를 360도로 둘러볼 수 있는 가상 서점을 구현하게 된 것.

가상 스토어 제작을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360도 회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 이렇게 촬영한 공간이 가상 스토어로 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고 서가에 꽂힌 책들을 일렬로 세우고, 매대에 누운 책들의 칼각을 맞추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네, 그게 광화문점에서 새벽에 제가 한 일이에요!!! (적어 놓고 보니 이 일도 낭만적인 구석은 별로 없네요.)



교보문고 광화문점 가상 서점 이미지

그 조용한 밤, 수많은 서가를 하나하나 살피며 책들을 정리하면서 혼자 계속 감탄했다. "와! 이런 책도 있었어?" 특히 평소에는 자세히 볼 일이 없던 벽면 서가,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곳이었다. 취미/실용 코너를 보라. 세상에는 이토록 재미나 보이는 취미생활이 많았다. 이 취미들을 하나씩만 시도해 봐도 어디 가서 이야기거리가 한 바가지는 될 것이다. 역사 코너를 보라. 온갖 시시콜콜한 것들도 다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소설 코너에 꽂힌 책들의 제목을 쪽 읽다 보면 가슴이 막 벅차 오른다. 세상에는 이토록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구나. 게다가 소설은 직접 읽어보기 전엔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 내가 펼쳐 보지 않은 책들로 가득한 서가 앞에 서니 거대한 뽑기 기계 앞에 선 것처럼 두근두근하는 것이다.

서점, 특히 대형서점은 단순히 '많은' 책이 있는 곳이 아니다. 서로 '다른' 책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다양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그 책들이 여기 서점의 서가에 꽂혀 있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그 다양함이 위로가 된다. 저자는 세상에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썼을 것이다. 출판사는 그 책의 독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에 비용을 들여 책을 출판했을 것이다. 서점은 그 책이 팔릴 만한 책이기 때문에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그러니까, 서점에서 내가 원하던 책을 찾아냈다면, 그건 당신의 취향과 관점과 필요를 이해하는 다른 누군가가 적어도 3명은 존재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그 책을 산 다른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4명 이상과 연결된 존재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책을 사는 일이 너무 멋지고 낭만적인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린 서점

그날 밤 텅 빈 서점을 구석구석 둘러보다 새삼스럽게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서점에는 학습서와 취업/수험서 공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었다. 평소에 오프라인 서점을 갈 때면 (광화문점 기준) 인문 - 정치/사회 - 경제/경영 - 문학 - 예술 - 취미/실용 순으로 분야별 신간 매대를 쪽 돌고 마지막으로 문구류 코너로 가는 동선을 선호하는 터라 몰랐었다. 학습서와 취업/수험서 공간에 이렇게나 광대하고 이렇게나 많은 책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흔히 전통적인 '독자'라고 하면 문학이나 인문서 독자를 생각하게 된다. 매주 발표되는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학습서와 취업/수험서는 집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자라 함은 '읽는 사람'이란 뜻인데 문제집을 '읽지'는 않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기 쉽다. 그렇다면 이런 책을 찾는 사람들은 '독자'가 아니라 '고객'일까? 이걸 좀 이상한 구분 아닐까?

책과 출판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전통적인 '책'과 '독서'와 '독자'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1세기의 책은, 읽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표지의 책을 구입해서 펼쳐 보지 않고 진열만 해둘 수도 있다. 학습서를 사서는 책 위에 온통 새까맣게 노트와 필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책의 페이지를 잘라내서 종이 장식물을 만들게 하는 책도 있고 유아용 촉감책이나 사운드북도 '읽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 '책'이고 이 책을 손에 든 이들은 모두 '독자'의 자격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점, 특히 대형서점은 이렇게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책이건 어떤 목적으로 그 책을 찾건, 원하는 책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은 대형서점의 오래된 야망이었다. 그 야망의 실현을 위해 분류와 진열, 물류와 배송 시스템을 갖추었고 말이다. 다만 이제까지 무의식적으로 '독자'와 '고객'을 다른 부류로 나누어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읽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독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독자를 만들고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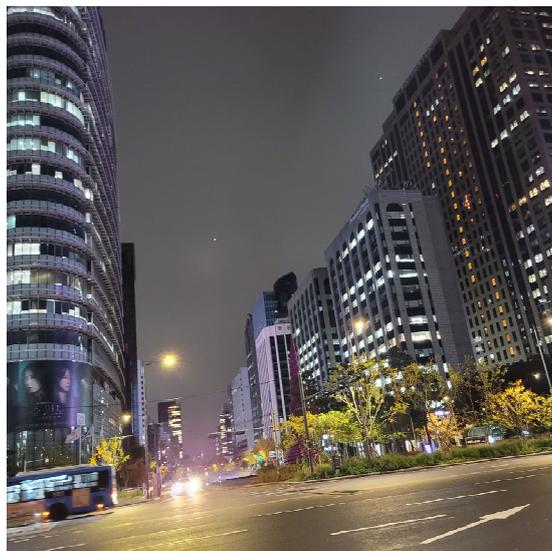
계속 존재하는 것의 책임감

읽지는 않지만 책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읽지도 않고 책도 안 사는 사람들에게도 열린 곳이 되는 것은 대형서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한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중에는 그곳에서 책을 사지 않은 사람이 책을 산 사람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일반 상점이었다면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가는 고객에게 눈치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서점은 관대하다. 서점은 책을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책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책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그 자신이 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 읽지는 않더라도 책 읽는 다른 사람들, 책을 쓰는 작가, 책과 관련된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을,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책에 호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것 역시 대형서점이 가지는 책임감 중 하나다.

인터넷서점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도 있다. 책 한 권이 서점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서지 정보뿐만 아니라 분류, 책 소개, 저자 소개, 목차 등 다양한 도서 정보들을 입력해야 한다. 책을 알리고자 리뷰도 쓰고, 저자 인터뷰도 하고, 기획기사도 쓰고, 영상 콘텐츠도 만든다. 그런다고 책이 더 많이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책에 관한 콘텐츠가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만든 콘텐츠를 봐 주는 사람들이 늘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반응과 이익은 없는 일들이다. 오히려 비용이라면 비용이다.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며 매출에 큰 도움 안 되는 나에게 주는 월급까지. 그럼에도 나는 책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서점은 온-오프라인 서점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 행사를 기획할 것이다. 서점이 존재하는 의미와 그 책임감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점이 있는 새벽

새벽 6시, 청소하는 분들이 출근하면서 고요했던 서점은 수런거리기 시작했다. 촬영을 마치고 주차장을 통해서 건물 밖을 나섰다. 광화문 거리는 아직 어둡고, 자동차도 사람도 드물게 지나갈 뿐 고요했다.

하지만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 속에,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종인 서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마음속에 '서점이 깨어나고 있다'는 문장을 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살짝 기분이 좋았다. 이제 곧 서점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 서점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박수진 (교보문고 북뉴스 에디터)

교보문고 북뉴스 에디터로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leftfield@kyobobook.co.kr

[출판인 이야기, 서점은 항상 열려있다]
작은 서점이 골목길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노명우(니은서점 마스터 북텐더)

2021. 12.

보들레르(Baudelaire)는 파리를 서정적 산문으로 바꾸어 놓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다. 그의 『파리의 우울(Le Spleen de Paris)』에는 “짜지는 듯한 유리 장수의 소리가 거리의 가장 높은 안개를 가로질러 다락방에까지 보내는” 파리의 모든 서글픈 암시가 서정적 산문으로 바뀌어 담겨 있다.

보들레르의 충동을 이어받아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의 책 풍경을 서정적 산문으로 변환해보고 싶지만 그 변환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곧 깨닫는다. 서울의 책 풍경을 서정적 산문으로 변환하려면 책 읽는 사람이 도시 풍경의 일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책 읽는 사람과 서점은 이 도시에서 오래 전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길거리에 카페는 두 집 건너 한 집일 정도로 흔해졌고, 도시의 점심시간 풍경은 모두 손에 쥘 커피 한 잔으로 묘사될 수 있고, 퇴근길 지하철의 시민은 하나같이 스마트폰에 고개를 처박고 있다.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출판 관련 모든 지표는 서글픈 암시가 짙어 있는 잿빛의 이미지이다. 조지 오웰은 책이 금지 되는 사회를 두려워했다. 1980년대의 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지 오웰이 필요했는데, 2021년 지금의 서울에선 책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 허슬리의 예언처럼 책을 금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책이 사라진 도시를 살고 있다.

‘어울린다’라는 단어를 “치장하지 않고 대상을 사실 그대로 잘 보여준다”는 뜻으로 사용할 경우 서울이라는 도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을 꼽으라면 레이 브래드버리(Ray Douglas Bradbury)의 공상과학 소설 『화씨 451』을 들고 싶다. 『화씨 451』의 배경이 되는 미래 도시의 파이어맨(Fireman)은 불을 끄는 소방관(Firefighter)이 아니라 책을 태우는 사람이다. 미래의 도시에서 파이어맨은 금지된 책을 여전히 읽고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 파이어맨은 책 읽는 사람을 색출하고, 그들이 숨기고 있던 책은 책이 불타는 온도인 화씨 451도를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서울은, 아니 전국의 모든 도시는 이미 파이어맨이 대활약을 한 미래의 도시를 닮았다. 책이라는 미디어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는 브래드버리 소설 속 미래 도시의 파이어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스마트폰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미디어를 화형시키는 파이어맨이다.

파이어맨이 휩쓸고 지나간 지하철을 나와 그에 못지않게 파이어맨이 대활약을 한 듯한 쇼핑센터를 지나가 골목길로 접어든다. 빠른 이동을 갈망하는 현대적 템포가 지하철을 지배하고, 쇼핑센터는 이윤과 비즈니스의 욕구로 넘쳐흐른다. 그 도시의 에너지는 골목길에 접어드는 순간 그 특유의 템포와 방향을 상실한다. 도시는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덩달아 행인도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대로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작은 길이 대로를 서로 이어준다. 작은 길이 큰 길과 연결되어 있기에 큰 길의 자동차는 속도를 낼 수 있다.



골목길 서점 '니은서점'의 외관



골목길 서점 '니은서점'의 내부

'니은서점'이 있는 은평구 연신내도 이와 비슷하다. 연신내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이다. 게다가 꿈의 속도를 지향하는 GTX도 교차할 예정이다. 인근 은평 신도시에는 그 규모를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쇼핑몰이 있다. 연신내역 사거리는 도시의 역동성과 그 미래 지향의 전시장이다. GTX 개통 이후의 특수를 노리는 듯, 낡은 건물은 놀라운 속도로 파괴되고 그 자리에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연신내역 주변의 길거리는 대자본의 치열한 경합장이다. 연신내 사거리는 대자본과 연결되어 있는 브랜드의 수집가이다. 연신내 사거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상점이 있다.

연신내 사거리의 대로는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다. 골목길로 들어선다. 골목길로 들어서면 순간 거리 풍경이 바뀐다. 대자본의 브랜드가 사라진다. 갑자기 가족 경영이 대다수인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밀착형 가게들이 눈에 들어온다. 부동산 옆에 과일 가게가 있고, 그 주변에 배달 전문 중국집이, 그리고 편의점과 그 골목길에만 있는 세탁소와 식당이 있다. '니은서점'도 그런 골목길에 있는 작은 서점이다.

골목길 '니은서점'에서 골목길의 시인 이연진을 생각한다. 이연진의 『골목길 나의 집』을 읽어본다. 이연진은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 박지원과 동시대인이지만, 박지원만큼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후 명성을 얻는 천재도 많지만 사후 명성이라는 뒤늦은 평가가 유독 이연진을 비껴간 것은 죽기 전 자신이 쓴 초고를 불태웠는데 아내가 불구덩이에서 건져 낸 원고만 남아 전해진 탓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역관이다. 신분으로 말하자면 양반이 아닌 중인이다. 그는 골목길에 있는 집에 산다. 골목길엔 삶이 있다. 이연진은 삶이 있는 골목길에서 삶을 관찰하여 그 삶을 시로 남겼다. 잠시 책을 덮고 서점 밖 창문으로

골목길을 오고 가는 사람을 쳐다본다. 그리고 이 서점이 어쩌면 골목길에 살던 이언진을 닮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서점이 하필이면 골목길에 있을 이유를 생각해본다.

장사는 목이다. 목이 좋으면 비즈니스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책을 상품으로만 여긴다면 책을 파는 가게, 즉 서점도 목이 좋은 곳에 있으면 좋다. 주말에 수만 명이 오고가는 쇼핑몰에 있는 서점은 아무리 책이 안 팔리는 시대라 하더라도 장사로 승부를 걸 수 있다. 시장의 논리를 따져볼 때 골목길은 서점이 있기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가상의 공간 속 온라인 서점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이언진은 골목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골목길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가 골목길을 사랑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이 좋은 큰 길을 지배하는 논리가 골목길에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목이 좋은 대로에서 권력과 돈을 탐하는 무리의 논리에 굴복하는 사람을 이언진은 노예라고 했다. 그는 말한다. “쿠키명 치들고 주인 뒤를 졸졸 따르니 종이라 불리고 하인이라 불리지. 천한 이름 뒤집어 쓰고도 고치려 없으니 정말 노예군 정말 노예야” 서점이 있는 골목길은 분주하다. 그런데 그 분주함은 대로의 분주함과 다르다. 대로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통로이다. 오가는 행인으로 꼭 차 있던 복잡한 대로는 밤이 되면 적막해진다. 모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로를 떠난 행인은 골목길을 통과한다. 골목길에서 사람들은 직업적 노동의 윤리와 의무를 강요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옷을 벗고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골목에 있는 서점은 상거래 풍경이 아니라 삶의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사람들은 서점 앞을 터전에서 일터로 오가며 지나친다. 물론 들어오는 사람보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하지만 서점은 골목길 어귀에 있음으로써 그들에게 말을 건다. 여기 책이 있는 공간이 있다고. 대형서점은 쾌적하지만 삶의 터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골목길 서점은 대형서점만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터전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며 골목의 분위기를 만든다. 자본주의적 영업장소로 채워진 골목과 그 지배적인 분위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서점이 있는 골목의 분위기는 다르다. 그 차이를 골목길을 오고가는 동네 사람이라면 단박에 눈치 챈다.

‘니은서점’은 골목 동네서점이다. 서점 손님의 절반 이상이 동네분이다. 동네분들은 ‘니은서점’을 칭찬한다. 심지어 동네에 서점이 생겨서 기쁘다는 분도 계시고 친구에게 자랑도 한다고 한다. 어떤 지역 주민은 우리 동네에 서점을 차려주셔서 고맙다는 인사까지도 했다. 책을 사든 사지 않든, 책을 읽든 읽지 않든 간에 여전히 사람들은 책과 관련된 장소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비즈니스 모델로써 동네 서점은 자본주의의 낙제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의 주민이 서점을 오가며 형성되는 게 있다. 바로 사람 간의 연결망이다. ‘니은서점’은 책만 팔았다. 책만 팔았을 뿐인데 서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연결망이 생겼다. 서점은 상점이지만, 서점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제적 행위로 환원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손님과 서점의 관계가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선 적립금으로 표현된다. 적립금의 크기는 손님과 대형서점/온라인 서점과의 관계의 빈번함을 말해준다. 하지만 적립금은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골목의 서점에선 그 관계의 빈번함이 인간의 얼굴로 표현된다. 사라진 줄 알았던 ‘단골’이라는 단어는 골목길 서점에서 여전히 통용된다. 서점은 ‘단골’을 회원 아이디 같은 식별 기호가 아니라 얼굴로 알아본다. 적립금은 쌓이지 않을 수 있어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삶은 두터워진다. 사회학자만 외로운 줄 알

았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외로운 사람이 많았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으로 고독을 달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혼자 책 읽기로도 달래지지 않는 고독이 있음을 '니은서점'의 골목길에서 깨달았다. 책을 상품의 속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면,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서점이 있는 골목길에서 다시금 깨달았다.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추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행위 또한 추구한다는 것을.

골목길 서점은 오늘도 열려 있다. 삶의 터전과 돈벌이 현장을 오고가던 사람들은 퇴근길에 서점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다. 그 곳은 고객님이라는 일반명사가 구체적 얼굴을 지닌 고유명사로 바뀌는 곳이다. 그래서 '니은서점'은 골목길에 있다.

노명우(니은서점 마스터 북텐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골목서점 니은서점의 마스터 북텐더이다. 이론이 이론을 낳고 이론에 대한 해석에 또 다른 해석이 덧붙이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가는 폐쇄적인 학문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연구 동기를 찾는 사회학을 지향한다. 캠퍼스에 갇혀 있는 교수보다는 평범한 삶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대리하는 헤르메스이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니은서점이라는 골목길 독립서점에서 마스터 북텐더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책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nhomyungwoo@gmail.com

결산과 전망

2021 출판산업 콘퍼런스

2021. 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1년 12월 9일 출판산업의 한 해를 결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21 출판산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이홍 한빛비즈 편집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신현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로 콘퍼런스가 시작되었다. 콘퍼런스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출판산업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트렌드와 요인들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출판시장 전망에 대해 논의하며 출판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1부] 데이터로 본 책 생태계

발제1. 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라벌(주)메트릭스리서치 부장)

서라벌 (주)메트릭스리서치 부장은 '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라는 주제로 콘퍼런스의 첫 번째 발제를 시작했다. 먼저 서 부장은 조사를 일곱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음을 소개하며,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조사 모집단으로 3,246개의 출판사를 설정했으며, 이 중 일반단행본이 64.9%(2,107개)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오프라인서점과 온라인서점 등 출판 유통사업체도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매출 및 종사자 규모와 관련해서 출판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출판 유통사업체 및 전자책 유통사의 매출액은 각각 3.1%p, 10.7%p 증가했다고 전했다. 출판 분야별 매출액은 일반단행본, 학술/전문서 등이 소폭 증가했으며,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아동도서, 학습지 등은 감소했고 2019년 대비 약 2.6%p 정도의 감소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사자 수 또한 분야별로 수험서 전문 출판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2020년 주력 출판 분야는 일반단행본이 61.6%, 학술/전문서가 18.5%, 수험서 6%로 일반단행본의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전하며, 전년 대비 신간도서 매출은 6.5%p, 국내저자 도서 매출은

10%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서점 출판 분야별 매출 비중은 학습참고서 42.5%, 일반단행본 26.2%, 아동도서 12.1%로 나타났고 서점 유형별 매출 비중을 보았을 때 종합서점에서 학습참고서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서점의 출판 분야별 매출 비중은 일반단행본 47.5%, 대학교재/수험서 19.7%, 아동도서 14.9%로 오프라인 대비 일반단행본의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 부장은 독립서점의 현황 조사 경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으며(진흥원 담당자와의 추가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특성을 고려해 차후 오프라인 서점 내 별도 카테고리 분석결과를 제공하려는 시도라 함),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상반기 매출액 현황과 고용 현황을 출판사, 출판 유통사 등으로 구분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며 발제를 마쳤다.



서라벌 부장의 발제로 콘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Q. 조사를 하며 현장에서 느낀 2021년 올해 출판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과 내년인 2022년에 주목할 사안들이 궁금합니다.

국내 독서 관련 통계를 먼저 살펴보니 성인은 독서량이 소폭 감소한 추이였고, 청소년은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형을 보시면 종이책 판매는 감소하고, 전자책 판매는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전자책 관련 기업들이 늘고 있었어요. 산업이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판산업에서 가장 영세한 지역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과 같은 신규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한 지역서점들이 향후 출판산업 내에서 타 유통사라든가 출판사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갈 수 있을 것인가가 차년도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발제2. 독서에도 데이터가 필요하다: 2021 독서 트렌드

전송이(밀리의서재 독서라이프팀 PR매니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송이 PR매니저는 올 한 해 독서 트렌드를 먼저 언급하며, 독서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밀리의서재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일반 대중을 메인 타깃층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중에 대략 65%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 매니저는 책도 OTT와 같은 영상 플랫폼 서비스처럼 콘텐츠로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MZ세대들이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야 한다면, 2030세대의 문화와 콘텐츠를 바라보는 관점은 광범위하고 개인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따라서 독서도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취향, 일상, 관심사, 추구하는 가치 등과 관련이 있는 콘텐츠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판매량에 좌우되거나 SNS 바이럴에 의해 책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러한 판매량이나 대세감은 독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협소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밀리의서재는 10만 권 이상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독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인생책'을 찾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며 책이 유튜브나 OTT 서비스처럼 일상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완독지수'로, 책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다 읽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데이터로 산출하여 현재 밀리의서재 내 모든 콘텐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완독지수'는 시간을 쪼개 쓰는 특징을 가진 2030세대에게 자신과 잘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해주며, 판매량 위주 또는 바이럴에 의한 추천도서에서 벗어나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밀리의서재에서 오디오북을 처음 접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급성장 중인 오디오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 매니저는 새로운 독서법에 대한 관심사가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2030세대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밀리의서재 전숨이 PR매니저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Q. 밀리의서재에서 도서 기획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앞서 발표한 ‘완독지수’나 현재 같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책에 대한 한 줄 리뷰 등을 모든 책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언제든지 다른 책을 만들거나 기획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담당자께 확인해보니 책을 만드는 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시면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고 싶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작년부터 독서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리포트를 내는 이유 중 하나도 데이터 공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플랫폼에서의 도서 행태는 서점과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위를 플랫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독지수’는 저희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를 저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만드는 분들과 같이 활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불편하신 점을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Q. 현재 각종 OTT 서비스에서는 점점 큐레이팅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가끔 저도 제 취향에 딱 맞는 추천에 흠칫 놀라곤 합니다. 밀리의서재에서는 예비 독자의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기 위해 어떤 큐레이팅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 OTT 서비스처럼 저희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많이 읽은 분야와 유사한 책이라면 유사 정도를 나타내는 퍼센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의 취향과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이라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큐레이팅을 단순히 '요즘에는 연말이니까 연말을 마무리하는 책을 읽어보세요'가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책을 검색한다고 하면, 단순히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책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하고 있거나, 크리스마스 근처에 나왔던 책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검색 결과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전달 외에도 검색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들, 유사한 책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큐레이팅 개편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큐레이팅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점들이 조명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3.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1부의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백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를 조사하게 된 배경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가 시민의 여가 생활 및 읽기 활동, 독서 생태계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함을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19 전후의 읽기 실태 변화 양상, 독서 활성화 방안 의견 분석 등을 토대로 독서 활동을 개선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코로나19 이전의 여가 활동에 대해 능동적, 자기주도적인 활동인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매체/콘텐츠 이용에 변화가 생겼으며, '인터넷 정보 읽기', '웹툰' 등 인터넷 기반 읽기 매체의 증가세는 매우 뚜렷했고, 종이 매체 기반의 읽기는 대체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열 명 중 일곱 명이 읽기 매체 이용의 변화에 코로나19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보기, 텔레비전 보기, 게임하기, SNS 이용 등은 증가한 반면, 영화 보기, 라디오 듣기, 종이책, 전자책과 같은 읽기 매체 이용 등 일련의 읽기를 기반으로 한 활동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읽기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이용률, 시간, 비용 지출 등이 증가했으며, 읽기 목적별로는 실용적 목적, 경제적 목적, 오락적 목적 순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먹고 사는 데 필요하고 부가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읽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전자책, 웹소설의 이용 추이와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 독서의 효용성 등을 설명하며,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책 읽기에 대한 스스로의 관심과 의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독서 생태계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하며, 독자 맞춤형 큐레이션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부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백원근 대표

Q. 코로나19에 따른 독서 트렌드 변화가 향후 출판 공급 분야에 가져다줄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합니다. 독서 트렌드와 출판 트렌드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 있습니다. 늘 독자들의 수요, 흥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전제로 하고 새로운 책을 기획하고 출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부각이 되는 것은 실용서, 재테크 등 독자의 삶에서 당장 필요한 어떤 것에 대한 요구와 갈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부 장르로 쪼개볼수록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반려동물에 이어서 반려식물에 대한 책이 뜨는 현상도 실제로 반려식물을 키우는 독자가 늘어나고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이를 출판 기획에서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때문에 인문교양서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직접 필요한 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Q. 구독 서비스를 통한 전자책 유통이 종이책 소비의 촉진을 돕나요? 아니면 역으로 저해하나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려면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에서 종이책을 판매했을 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던 것이 그대로 종이책 구입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습관을 강화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측면에서는 구독 서비스의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힘들고 무료로 보고, 돈을 내고 보다가 금방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읽기' 과정이 플랫폼에서 완료가 되었는데, 소장하

기 위해 종이책을 구매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성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종이책의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부] 디지털 시대의 출판, 책 생태계

발제4. 피지털(Phygital) 시대, 출판의 미래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

2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피지털(Phygital) 시대, 출판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먼저 장 대표는 『출판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출판의 미래를 좌우할 열 가지 기본 트렌드를 소개했다. 또한 콘텐츠의 질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며, 콘텐츠와 소비자의 '연결'에 주목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더욱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 플랫폼, 구독 경제, 온라인 등이 오프라인을 지배하는 사이버-피지컬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이나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듈의 존재 여부와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서 장 대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가 디지털 세계에 종속되고 있다며, 제조는 약해지고, 유통이 강화되는 구조를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를 장악하는 회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플랫폼 인클로저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러한 세상에서 책을 생산하는 기술이 아닌, 연결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연결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웹 플랫폼들이 종이책에서 과거에 하던 영역들을 빠르게 편입해가고 있음을 전하며, 이러한 플랫폼 자체가 자신들의 영역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출판업계는 플랫폼에서의 후순위 콘텐츠를 다루게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장 대표는 작가, 편집자, 독자의 권리가 강해질 것이며, 유통의 힘이 거대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출판은 구독 모델을 구축하고, 여기서 콘텐츠를 만들어 다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표준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전하며, 생산 자체보다 생산한 것을 어떻게 선별하고 배치해서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출판이란 '읽기'를 판매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어떤 형태로 파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수 대표가 2부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고 있다.

Q. 펜데믹 이후 출판은 디지털 신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출판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할까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과 굉장히 다른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출판사를 내고, 저자 강연회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책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야겠지요. 거기서 무언가를 읽히려면 다른 방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기서 서점과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 굉장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메타버스가 단기간에 인터넷처럼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시도해보고 무언가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먼저 모바일에서 잘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에서 무언가를 잘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독자를 어떻게 데리고 있느냐'입니다. 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독자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인데, 독자가 모여져 있다면, 같이 메타버스에 가자고 해도 될 것이고 콘텐츠 구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팬덤을 먼저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독립출판과 1인출판 문화로 인해 책을 쓰는 일에 대한 진입장벽이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향후 출판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독자와 저자가 직접 연결되는 세계에서는 저자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자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자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언제든지 아무 플랫폼에서나 쓰고 나면 자신 한 몸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플랫폼에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최근에는 결제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같이 말입니다. 지금은 썩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활성화된다면 저자 입장에서는 중간 매개자 없이 직접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책의 생산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전자책에서는 더욱 빨리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출판사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출판사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가치를 확보하지 못한 출판사는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것은 출판사는 여러 명의 저자를 모으고, 큐레이션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서양 철학을 번역해서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전기가오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무엇으로 가지느냐가 미래 출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5. IP생태계에서 바라본 출판

이성민(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2부 두 번째 발제는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IP생태계에서 바라본 출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먼저 이 교수는 IP 트렌드와 관련된 사업들이 출판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며, 콘텐츠IP 생태계에서 책과 출판의 위치를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 교수는 콘텐츠IP의 개념에 대해 '콘텐츠에 기반하여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라고 정리하며, 원형성, 확장성, 연계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IP생태계에서도 콘텐츠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연계성이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졌음을 밝히며 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연계 패러다임에 대해 단일 미디어 소비에서 연계 미디어 소비로, 소비자의 일방적 수용에서 생산적 참여로 형태가 변화했음을 설명하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저변은 팬덤의 참여 문화라고 전했다. 각 매체의 성격에 맞게 변형되어 소비되던 콘텐츠가 이제는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채 매체 간에 연계되어 소비된다고 설명하며, 웹툰으로 인기를 끌고, 최근 드라마로도 큰 성공을 거둔 『유미의 세포들』을 예로 들었다.

이어서 이 교수는 현재 유행하는 미디어의 시대가 왔으며, 콘텐츠 경험 양식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전했다. 덧붙여 콘텐츠IP는 팬덤의 구심점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웹소설, 웹툰, 영화 등으로 변해가는 이야기IP와 경험 양식 확장의 축, 즉 상품화를 통한 일상 공간으로 IP 경험을 연장하는 라이선싱IP에 대해 설명하며, IP비즈니스 콘텐츠 관점에서 출판과 책은 따로 봐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팬덤이며, 팬덤의 코드를 이해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팬덤과 소통하고, 팬덤에게 '놀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책의 물리적인 매력과 관련해 출판과 책을 통한 세계관 확장과 고유한 경험을 제공하며, 높은 상호작용성과 내적 완결성 등 출판만이 가질 수 있는 템포와 물성을 바탕으로 팬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콘텐츠IP 시대에 기획자는 세계관 구축의 출발점에서 확장 가능한 IP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마케터는 팬덤과의 접점이라는 최전선에서 IP 연계와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교수가 콘텐츠IP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Q. IP 사업에 가장 부합하고 효율적인 출판 형태나 도서 장르는 무엇인가요?

저는 키즈 분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IP가 잘 되려면 팬덤 인 게이지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기가 너무 길면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리즈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써서 과거에 있던 브랜딩 전략들을 확장하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의 장르라는 표현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이 가질 수 있는 물성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품들이 IP생태계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IP의 팬덤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출판의 형태와, 형성된 팬덤에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서 형태가 다르다고 보고, 그것을 두 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IP생태계와 오프라인 서점은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까요?

IP생태계가 너무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비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라이선싱IP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IP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일상에 IP를 두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소비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서점이라는 공간은 일종의 공간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판이 굉장히 오래된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팬덤이 확장되어 있고 오프라인 소비 같은 것들을 활

싼 더 연계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관점에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치를 주는 것이 지금의 IP생태계의 특성에 더 잘 맞지 않나 합니다.

발제6. 서점,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

김기중(구미 삼일문고 대표)

김기중 대표는 본인이 서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번 콘퍼런스의 마지막 발제를 시작했다. 먼저 김 대표는 서점이 지역의 중요한 문화 거점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 세계 300여 개 서점을 돌아보며 지속가능한 서점이 무엇인지 모색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를 통해 얻은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서점의 '중대형 서점의 상품 중심', '소형 독립책방의 사람 중심'이라는 두 가지의 서점 변화 양상을 설명했다. 책의 종은 많아지지만 소비량은 줄어들면서 장서량이 아닌, 공간을 활용한 상품으로 승부를 보는 중대형 서점과 책방을 통해 여러 문화 활동을 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소형 독립책방의 차이에 대해 전한 김 대표는 지역서점을 문화공간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면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강사 섭외, 청중 모객 등 1차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은 지원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거점공간이 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게 된 삼일문고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주 3회 정도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러한 문화 활동을 통해 주변의 문을 닫은 공간들이 살아나고, 국책사업, 문화사업들이 진행되어 원도심에 활기가 생겼다고 전하며, 문화 활동이 지역의 문화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단체, 시민의 참여 등도 활성화되어 함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도서관, 중·고등학교, 경찰서, 시청 등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민의 SNS 연결망이 되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문화를 발신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문화를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미의 그림책 팟캐스트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어서 삼일문고가 책을 파는 곳에서 나아가 타인과 교류하는 장소로 인식되면서 동네의 주축 문화공간이 되었다고 말하며, 지역의 문화소외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투자 여력이 없는 서점은 일상적인 문화공간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지역서점의 문화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기중 대표가 지역서점과 문화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 소규모 출판사가 지역서점 및 주민들과 문화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보통 작은 출판사와 같은 곳에서 책을 내면 홍보 수단으로 서점에 광고 제안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간 북토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이 옵니다. 저희는 모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주제라면 대부분은 수락합니다. 책들에 대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열 개 정도 되는 서점이 모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보통 무상으로 하지는 않고 일정량의 강사비도 지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점을 활용해주시면, 서점은 섭외하는 수고를 덜고 출판사는 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Q. 문화공간이 만약 과정이라면,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단계는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의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서점의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정 짓는다면, 저희는 접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상품 중심으로 모색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공간을 빌릴 것인지, 카페와 합칠 것인지 등 다양한 공간적인 모색과 책 상품에 대한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서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사람, 대면이 그리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서점이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행사들이 서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서점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민 문화공간이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가지는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대학교의 강사들을 대신 섭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섭외력 부분에서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 저자나 출판사에 전화해서 섭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섭외력이 좋다면 강사료를 많이 쓸 수 있다 정도가 전부이고, 실제로 다양한 강사풀과 다양한 강연을 할 수 있는 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나면 행사를 대부분 오전에 합니다.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섭외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서너 배쯤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민 문화공간이 비용이나 콘텐츠 측면에서 공공기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2021 출판산업 콘퍼런스 "결산과 전망" 영상 다시 보기

"나는 ○○○입니다"… ‘직업 에세이 2.0’ 시대

양지호(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2021. 12.

“새롭고 낯선 직업에 도전한 내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내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숨기지 않고 내비치는 사람도 있었다. (중략) 지저분한 옷을 입고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와 차별을 받기도 했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꼭 참고 다시 벽 앞에 서며 버텼다.”

- 『청년 도배사 이야기』, 174쪽



도배 작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도배사 이야기』 저자 배윤슬 씨 (출처: 배윤슬 인스타그램)

올 한해 쏟아진 직업 에세이를 보면 ‘직업 에세이 2.0’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2018~2019년 판사, 검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쓴 에세이가 주목받았던 시기를 ‘직업 에세이 1.0’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시 검사였던 김웅의 『검사내전(부키)』,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흐름출판)』, 박주영 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김영사)』 등 일터에서의 경험과 단상을 적은 본격 직업 에세이가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시인·소설가 등 문단 출신의 정제된 사유와 글 솜씨를 향유하던 기존 에세이 시장에 새로운 하위 장르가 탄생한 것이다. 당시 이를 표현하기 위해 나온 ‘업세이(직업+에세이)’라는 용어는 본격적으로 ‘직업 에세이 1.0’ 시대 등장을 알렸다.

올해 본격화한 '2.0'은 한국 사회에서 선망을 받는 일부 전문직 출신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직업 종사자들이 에세이를 펴내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소위 '3D'라 불리는 직종에서 직업 에세이가 쏟아져 나오고 화제도 됐다. 서두에 인용한 『청년 도배사 이야기(공리)』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일용직 노동자(『노가다 칸타빌레』, 송주홍), 아파트 경비원(『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최훈), 콜센터 근로자(『믿을 수 없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게 억지스러운』, 콜센터 상담원) 등이 있었다. 흔치 않은 직종인 누드모델(『나는 누드모델입니다』, 하영은), 항해사(『지구를 항해하는 초록 배에 탑니다』, 김연식), 기상예보관(『맑음, 때때로 소나기』, 비온뒤) 등도 책을 냈다. 출판 시장에서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직업군의 필자들이 자기 직업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직업 에세이 2.0' 시대다.

바야흐로 내 직업이 '콘텐츠'인 시대가 됐다. 물론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편의점주 봉달호(필명) 씨가 쓴 『매일 갑니다, 편의점(시공사)』은 2018년 9월 출간돼 4쇄를 찍었다. 직업군 다양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저작이다. 이후 직업 에세이 작가군은 확대일로를 걸었다. 글쓰기에서 출간으로 연결되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보다 많은 필자가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여러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작가 발굴에 나섰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앞으로 직업 에세이는 더 다양한 직종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직업 에세이는 당분간 에세이 시장에서 양적으로 팽창할 전망이다.



‘직업 에세이 2.0 시대’의 에세이들. 왼쪽부터 『청년 도배사 이야기』, 『믿을 수 없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게 억지스러운』,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노가다 칸타빌레』



‘직업 에세이 1.0 시대’의 에세이들. 왼쪽부터 『검사 내전』, 『골든아워』, 『어떤 양형 이유』

내 직업이 내 콘텐츠

상대적으로 독자층이 동질화된 한국 단행본 출판 시장에서 날 것의 직업 에세이는 독자들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독자를 안내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사'자(字) 전문직 에세이는 꾸준히 나오면서 콘텐츠로서 신선함을 잃어갔다. 반면 올해 나온 직업 에세이는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을 덜 가졌던, 그러나 존재함은 분명히 알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은 독자의 관심을 끈다. 도배사, 일용직 건설노동자처럼 독자층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직업군의 밥 벌어 먹는 이야기는 평소 접하기 힘들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상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때로 판타지적이기까지 하다. 일상 속 공간의 이면으로 독자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출퇴근 수단일 뿐인 지하철. 누가 지하철을 청소하고 역사를 관리하는지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지하철 미화원의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결이 보인다. 막차가 끊긴 후에 지하철 미화원이 물 청소를 하기 위해 손님을 내보내는 모습 같은 것들.

“술에 취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용변이 급하다며 닫힌 셔터를 열어달라고 애걸복걸 협박(여기서 본다?)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생이별을 했는지 울고불고 떼쓰면서 주저앉아 행패 부리는 사람 등. 일도 일이지만 이런 사람 달래서 집에 보내는 것도 우리 일과 중 하나다. 잘 보내야 본전인데 찜찜할 때가 많다. 때로는 손수건도 주고, 길도 가르쳐주지만 잘 갔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말이다.”

- 『나는 밤의 청소부입니다』

일용직 건설현장 노동자의 출근길을 간접 체험하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다. 『노가다 칸타빌레(시대의 창)』에서는 필자가 일을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목숨을 건 결투에 나서는 서부극 총잡이처럼 묘사한다.

“넥워머를 입고 각반을 찬다. 못주머니를 두르고 카우보이처럼 망치를 쓱 빼본다. 안전화를 신고 선글라스와 안전모를 쓴다. X자 안전벨트를 걸치고는 작업용 장갑을 바짝 당겨 손가락을 한번 움직인다. 어지럽게 널브러진 자재 위로 소음과 먼지와 욕설이 뒤엉킬 눈앞에 풍경이 펼쳐진다. 현장이 열린다.”

- 『노가다 칸타빌레』

심채경(39)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에세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문학동네)』는 자신의 일과를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독자를 밤하늘이라는 무한한 공간으로 초대한다.

“유독 밤새 빈틈없이 관측한 날은 파킹(망원경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하는 그 순간이 가슴 끝까지 뿌듯하다. 너무 졸려서 미각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밥을 국에 말아 후루룩 한 그릇 비우고는, 관측자 숙소의 암막 커튼이 주는 그 따뜻한 어둠 속에서 죽음처럼 잠들고 싶은, 관측하기 딱 좋은 날.”

-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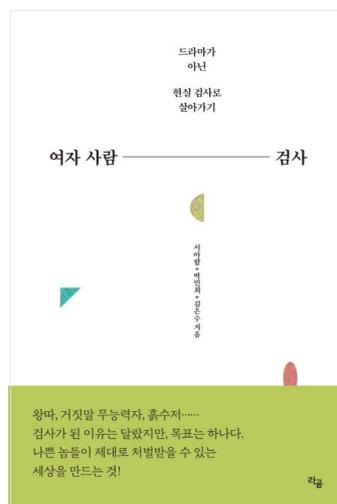
‘먹방’이 외국 우수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고 있지만, 그 먹방을 싫어하는 직업군도 있다. “콜센터 근무 경력의 오래된 친구 중에는 ‘먹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찹찹거리는 소리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고객이 뭘 먹으면서 전화를 거는 경우도 많아 생긴 직업병이랄까.(『믿을 수 없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게 억지스러운』)” 이렇듯 무수히 다양한 세계로 독자를 연결해주는 것이 직업 에세이 2.0 시대가 가져온 모습이다. 챗바퀴처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책을 펴들고서는 전혀 다른 삶의 현장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과거 직업 에세이는 의사·기업인 등 선망하는 직군에서 성공한 사람이 썼다면, 최근 들어선 MZ세대를 필두로 직업의 귀천에 대한 선입견이 약해지면서 훨씬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몇몇 직업 에세이는 독자에게 대안적 라이프스타일까지 제시한다. 올해 직업 에세이 중 아마도 가장 큰 화제몰이를 했던 『청년 도배사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도배사가 된 저자는 인터뷰에서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기성세대와 다르다”며 “(기성세대가 말하는) ‘더 좋은 일’이 뭔지 오히려 묻고 싶다. 현재 만족하고 즐기는 일,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한 일. 그보다 나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적응하기 힘들었던 조직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도배사가 됐다고 고백한다. 회사 조직에서 ‘을(乙)질’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대다수 직장인은 솔깃함을 느낀다.

내 일을 말하기에 너무 이른 때는 없다

직업 에세이 2.0시대의 다른 특징은 필자 연령대가 내려간다는 점이다. 배윤슬 도배사는 29세, 형틀목수로 일하는 『노다가 칸타빌레』의 송주홍 씨는 34세다. 『여자 사람 검사(라곰)』를 쓴 서아람(35), 박민희(35), 김은수(필명:37) 검사 3인방은 9년차 평검사다. 『여자 사람 검사』를 쓴 저자들은 “평검사가 직업 에세이를 쓴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부장검사는 돼야 책을 낸다는 분위기를 깨고 10년차 미만 워킹맘 검사들이 솔직하게 조직 생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9년차 워킹맘 검사 세 사람이 쓴 『여자 사람 검사』 표지. 평검사가 에세이를 낸 보기 드문 사례다.

직업 에세이 1.0을 떠올려보자. 김웅 검사, 이국종 교수는 40대 후반이었고 박주영 판사는 50대였다. 과거에는 60~70대가 됐을 때 회고록을 썼다면, 직업 에세이 1.0 시대에는 조직의 ‘허리’가 펜을 들고 2.0 시대에는 더 젊은 필자가 글을 쓰고 있다. 이는 주 구매층인 3040 독자들과 또래 저자가 늘어나는 뜻이기도 하다. 동년배가 글을 쓰다 보니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읽을 수 있다. 한 출판사 편집자는 “과거처럼 ‘볼장 다 보고’ 책을 쓴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당장 느낀 바를 쓰는 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업에 완전히 젖어들기 전인 사람들이 일을 배워나가면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외부인인 일반 독자에게 소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소위 MZ세대라 부르는 한국의 1980~1990년대생들이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프렌즈 등을 겪으며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게 익숙한 것도 필자의 연령층이 어려워지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필자가 발굴되는 이유다. 김현숙 궁리 편집주간은 “배 씨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도배사 생활을 올리는 것을 보고 출간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10년 경력의 ‘콜센터 상담원’(필명이자 그의 직업이기도 하다)이 쓴 『믿을 수 없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게 억지스러운(코난복스)』은 트위터 계정 팔로어가 약 3만 명인 ‘파워 트위터러인’이다.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필자를 출판사들이 찾기 더 쉬워졌고, 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양적 팽창은 진행형, 질적 성장은?

직업 에세이는 크지 않아도 확실한 수요가 있다. 진로 독서가 중시되는 중·고등학생이 독자가 되기 때문이다. 배운슬 도배사는 출간 이후 관련 강의를 해달라는 각급 학교 문의가 쇄도했다. 책 판매 외에도 강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특징이다. 온라인에 신변잡기를 적던 사람이 책을 내고자 마음먹었을 때 가장 간단한 선택지는 ‘일 이야기’인 것도 직업 에세이가 늘어나는 원인이다. 출판평론가 한미화씨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처음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뭔가 써서 출판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타 직군들은 잘 모르는 자기 일 이야기다 보니 초보 저자들의 직업 에세이가 꾸준히 나온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아쉬움도 있다. 여러 직업 에세이가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 확장성은 다소 떨어진다. 자칫 직업에 대한 ‘알쓸신잡’과 신변잡기로 끝날 위험도 상존한다. 사실 ‘직업 에세이 2.0’이 독자층 저변을 넓히는 데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다.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직업 에세이는 드물었다. 그래서 직업 에세이 회의론도 나온다. 한 대형 출판사 팀장급 편집자는 “에세이는 어떤 게 대박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 놓고 본다는 일종의 투기 심리가 있다”며 “내용보다도 해시태그로 수렴될 만한 콘텐츠를 발굴해 이것저것 내는 시도가 이어지는 게 눈에 띈다”고 했다.

“에세이는 ‘한 개인’의 체험, 경험, 생각, 감상이 독자와 같은 진동수로 공명해야 울림을 갖는 장르다. 지극히 사적인 글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민음사)』

베테랑 편집자 이수은이 자신의 독서 에세이에 쓴 글이다. 직업 에세이라는 장르가 출판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단지 '직업 소개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곱씹어 볼 말이다. 수준 높은 직업 에세이가 더 많이 나와야 책을 통한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일도 수월해질 것이다. 직종의 다양화는 이뤄지고 있다. 더 큰 공감대를 위한 작업은 남겨진 과제다.

한 명의 독자로서 다양해지는 직업 에세이를 읽는 것은 어쨌든 큰 즐거움이다. 어떤 직업을 택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는 몇몇 직업만 강요당하며 자라나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희소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너 공부 안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는 선생님과 부모님 말을 듣고 자라난 세대에겐 더더욱.



양지호(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2013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출판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자라나며 원 없이 책을 읽었는데, (잠시나마) 책 읽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좋은 책이 더 널리 읽히기를 바란다.

yang.jiho@chosun.com

[책과 공간 4]
서울의 작은 지구촌 문화 사랑방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작은도서관

2021. 12.

글로벌 시대라는 말이 보통명사가 됐을 만큼 전 세계가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나누는 시대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글로벌화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책을 읽고 문화를 누리는 시설이나,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며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공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문화 교류와 소통의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서적을 읽을 수 있다. 수준 높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 길라잡이이자 외국인들의 사랑방으로 활용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낯선 나라에서 일상을 이어가야 할 때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이질적인 문화다. 익숙한 문화와 일상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 시설로, 2008년에 개관해 외국인 주민이면 누구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센터 외관 사진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민화, 한지, 매듭, 서예, 한국 요리 등의 정규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회성 체험이 아닌 심화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커리큘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인근에 있는 두 개의 국제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명절이나 행사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는 지역탐방 프로그램, 내외국인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하며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시설이 흔치 않은 까닭에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른 곳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교육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언어의 원서를 총망라한 작지만 알찬 도서관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은도서관도 개관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2015년부터 프랑스문화원과 MOU를 맺어 문화원의 미디어도서관 자료를 일정 기간 센터에 비치하고 대출과 반납 서비스(상호 대차 서비스)를 지원했다. 2018년 프랑스문화원 미디어도서관이 폐관되며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DVD, CD, 잡지, 프랑스어 교재 등을 기증받으며 센터 도서관의 규모를 키웠다. 기존 자료에 프랑스어 자료, 영어 및 기타 언어 자료를 더해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이용객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외국어 원서를 다량 보유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에 걸맞게 불어·영어 자막을 지원하는 한국 영화 DVD와 한국 소설의 불어 번역본, 그리고 외국어로 된 한국 문화 및 관광 자료 등을 폭넓게 소장하고 있다. 제일 수요가 높은 것은 어린이 도서 및 간행물로, 신규 도서 선정 시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도서 순서로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어린이 도서는 한 군데로 모아 공간을 따로 조성해서 센터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독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할 땐 사전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소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DVD코너



어린이 코너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광장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작은도서관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자랑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문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표 프로그램 ‘스토리텔링’은 학부모 또는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소리를 내어 실감나게 읽어주고 그날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창작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력이 없어도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어줄 자신만 있다면 누구나 읽어주는 사람(스토리텔러)으로 참여가 가능해 더 많은 이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서울프랑스학교와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가 합동으로 ‘세계의 동화 읽기(world’s storytelling)’라는 기획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각국의 대표자가 자기 나라의 동화를 읽고 발표하는 활동으로,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는 스토리텔러를 선출하고 공간을 제공하며 협력하고 있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내에서도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역할을 구축해가고 있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나눔 정신과 자발성’으로, 이 두 요소가 더욱 활발한 에너지를 창출하며 작은도서관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발휘되고 있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에는 원래 소장하고 있던 자료와 문화원에서 이전받은 자료 대부분이 프랑스어 자료였기 때문에 프랑스인 주민에 편중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점점 영어권 및 기타 언어권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언어권의 자료들을 확대해 풍족하고 다채로운 도서관으로 변모를 추구하며 작은도서관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언어 서적을 제공하는 모두에게 열린 커뮤니티 공간

Mini Interview 임지미 센터장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국 생활 적응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개관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는 '작은 프랑스'라고 불리는 서래마을에 있다 보니 유럽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특색이 생겼습니다. 센터장으로서 이 공간이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설'이라는 딱딱한 장소가 아닌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들르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센터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센터 내 작은도서관 이름을 '글로벌 도서관'이라고 명명한 것과 같이 다양한 언어의 자료를 소장하는 등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책생태계 사람들 ②]

김수영의 생애와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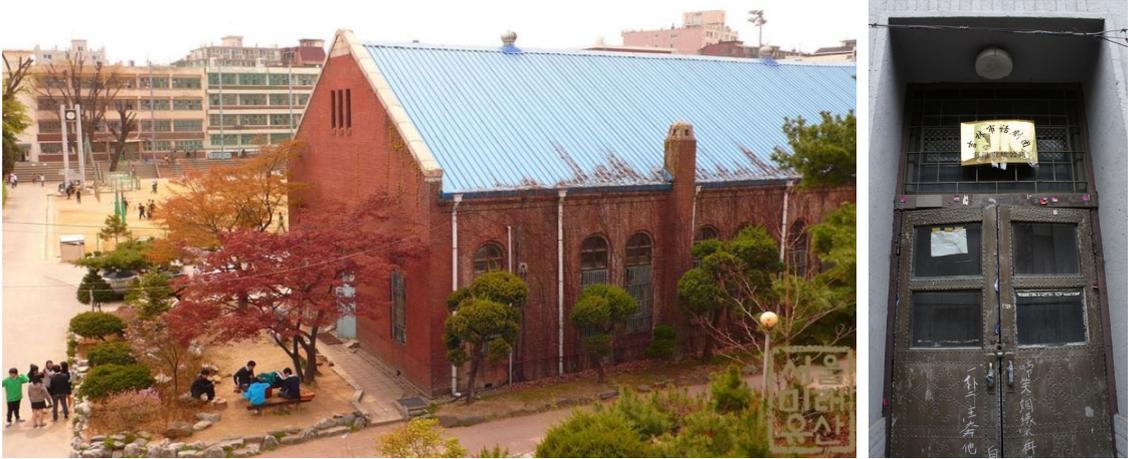
항상 첫 출발이었던 시

박수연(문학평론가)

2021. 12.

김수영은 서울 종로2가에서 태어났다. 1921년 11월 27일의 일이었다. 다음해에 그는 동대문 앞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자라고 교육받았다. 그의 집은 그가 선린상업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시 사대문 밖으로 밀려나야 했지만, 동대문 앞 골목길 안에는 여전히 그의 고모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했을 때도, 해방공간의 소음을 피해 숨어 있을 때도 김수영의 공간은 바로 그 동대문 앞의 골목길에 있는 거처였다. 그의 집은 애초에 유복했으나 권리 없는 나라의 유력가문이 대부분 그랬듯 그의 집안도 근대와 식민의 압력에 속절없이 쓰러져갔다. 사람들은 밀려오는 근대 문명의 파도 속에서 개인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이 개인은 그의 과거의 모든 것의 총체일 것이지만, 근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중이었다. 식민지 조선이 그렇게 구성되었고, 지식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김수영은 장남이었지만 쓰러져가는 집안을 지탱해야 한다는 요구보다 식민 현실의 모순 앞에 똑바로 서서 견디며 삶을 지탱하는 개인이라는 과제에 더 충실한 사람이었다.

김수영은 은행 같은 데 취직해 집안을 건사해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을 뒤로하고 일본에 건너가 연극에 심취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시기였고 식민 본국의 자유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의 일본 공격을 피해 귀국했고 잠시 연극계에서 연출 보조 같은 일을 하다가 만주 길림으로 이주하였다. 길림극예술연구회가 그를 맞이했고, 1945년 6월에는 길림공회당에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길림공회당의 길 건너편에는 만주지역 최대라는 공자사당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어서 일본이 패망했고 그의 가족들은 귀국하여 서울 충무로에 자리 잡았다.



선린상업학교 강당(현 영상교육관), 구 길림공회당 출입문(사진 촬영: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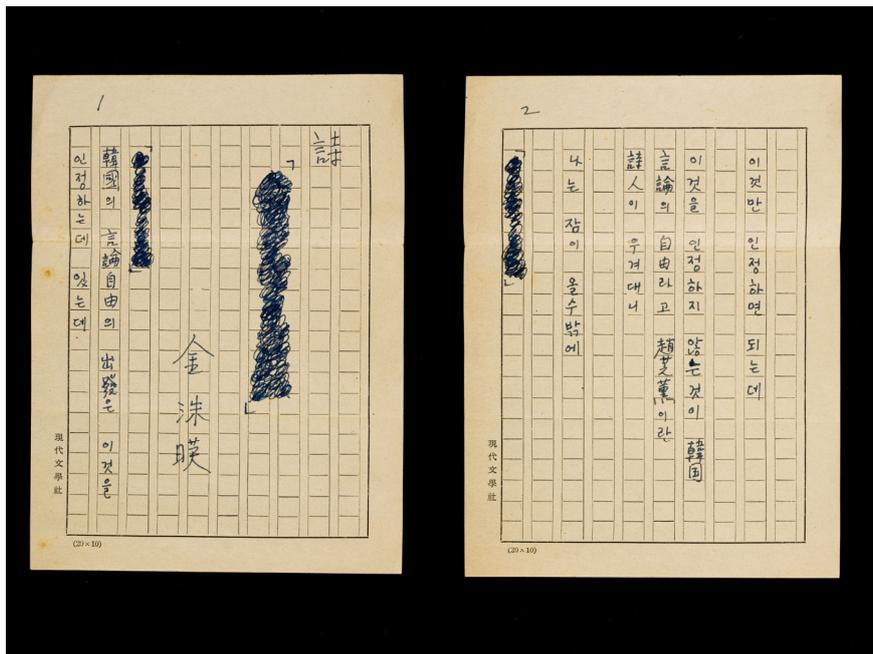
김수영은 연극을 버리고 문학의 길을 걷게 되었다. 「묘정(廟廷)의 노래」가 등단작이다. 고전적 정서와 언어를 가진 이 시가 그의 등단작이라는 사실은 작품의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의 정신세계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의 삶과 사유의 바탕에 동양적 전통의 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수영은 곧 전통적 서정의 언어 대신 현대적 혁신의 언어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당대의 모더니스트들이 그의 동료였고 동지였다. 그러나 해방공간은 오직 문학과 예술의 심미성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강제로 인민군에서 훈련받았던 김수영은 민간인 억류자 신분이 되어 포로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다. 영어로 소통할 줄 알았던 그는 통역자로 또 수용소 병원 조무로 끔찍한 시간을 견뎠다. 그 끔찍함에 질린 김수영은 그의 미메시스(mimesis)적 시 언어 속에서도 포로생활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



김수영의 등단 작품, 「묘정의 노래(1945)」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전개된 1950년대의 그의 문학은 후진적 한국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기도 했다. 1950년대 내내 김수영의 시를 사로잡은 주제는 현대를 향한 고통이 참담할지라도 그것을 건너 새로운 세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의 시는 뒤떨어진 한국 현실의 설움에 대한 것이었고, 현대적 창조와 운명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를 위해 거듭나야 하는 시인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근대를 아는 사람만이 근대를 차버릴 수 있다고 시에 쓰기도 했다. 이 자기 혁명의 정신이야말로 그의 1950년대 모더니즘의 근간이었다. 김수영은 그것을 초현실주의의 정신이라고,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의 시가 다른 모더니스트들의 언어 미학적 경향과 달리 사회적 발언으로 확장된 것은 그 때문이다.

1960년의 4·19는 김수영의 정신을 혁명적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시의 혁명가였고 정치의 비판자였다. 허정 과도내각을 향해 혁명을 팔아먹은 집단이라고 외쳤고, 2공화국을 자신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그에게 혁명은 절대적 변화의 지평까지 진척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4·19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했을 때 그의 시는 소시민성의 비겁을 폭로하는 쪽으로 언어의 방향을 틀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을 폭로하여 사회 전체를 성찰하고 그로써 다시 생성될 세계를 예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김수영의 「김일성 만세(1960)」 육필 원고

역시 세계는 변화할 것이었다.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던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일협정과 경제개발에 집중했고, 국민들은 그 협정과 발전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뀌버렸다’고 썼던 김수영은 바로 그 혁명의 방으로 다시 시를 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인에게 당시의 정치적 국면은 이제 식민주의의 온전한 청산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내기 시작했고, 김수영은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김수영이 민중의 역사를 되살려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삼기 시작한 것도 한일협정을 거치는 1960년대 중반 바로 이때부터이다. 그리고 얼마 후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집 바로 앞에서 갑자기 달려든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문학심포지엄에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글은 「시여, 침을 뱉어라」이다. 시의 언어를 통해 세계의 진실을 열어 보여주는 모험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 글에서 그는 그의 가장 유명한 명제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썼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썼다.

시도 시인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도 여러분도 시작하는 것이다. 자유의 과잉을, 혼돈을 시작하는 것이다. 모깃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는 것이다. 모깃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그것을—

— 「시여, 침을 뱉어라」

요컨대 김수영은 자신의 시를 그치지 않을 새로운 시작의 선상에 두어야 했던 시인이다. 그것이 그의 모든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수영의 삶은 그의 시의 주제와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를 유심히 읽은 독자들은 그의 삶의 요소에 유교적 정신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모더니즘 시가 단지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초현실주의의 정신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수영의 정신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유교정신은 그의 금욕주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해주는 요인이기도 하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의 시에 나타나는 전통의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 초현실주의 연극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래디컬 모더니즘은 이후 그의 시에서 자신의 전통마저 거부하는 모더니즘적 자기부정 정신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이 자기부정이야말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 결합된 형태로서의 김수영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핵심을 전제로 하여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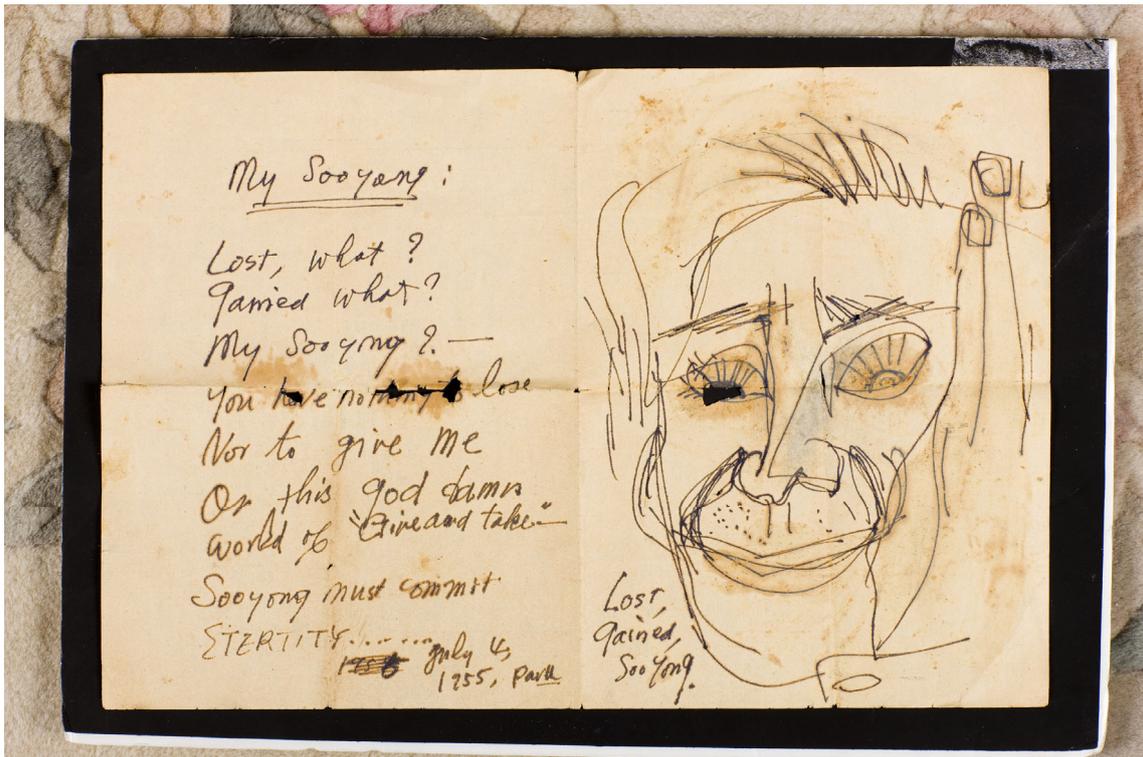
김수영의 시적 출발기로 분류된 1940년대 시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성된다. 전통, 주체, 초현실주의가 그것이다. 전통을 대표하는 시는 「묘정의 노래」이다. 김수영의 시들은 전통을 역사적 범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그의 초기 시에서는 경배가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다. 그가 1950년대 내내 과거를 부정하는 작업에 집중했던 이유가 이와 관련된다 할 수 있다. 다음, 주체중심주의의 근대철학의 내용이 '책'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다. 이때 책의 내용은 독자가 그 내용을 상상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그는 미국에서 건너온 책을 문제 삼고 있었는데, 미국은 조선 사람들이 가진 이해의 지평 너머에 있는 나라였다. 그 책을 주체와 연관시키는 것은, 고통스럽더라도 주체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주체 스스로 구성해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미적 근대성으로서의 초현실주의적 시작 방법이다. 초현실주의는 자기부정과 현실부정의 태도를 주요 동인으로 삼는다. 김수영의 시적 자기 변혁은 바로 초현실주의의 정신을 하나의 기본 요인으로 하는 것이다.

전쟁 이후 김수영은 1950년대를 거치는 동안 속도주의로서의 근대의 완성을 추구한다. 이 시기의 초

반에, 정확히 말해 1956년까지는 그의 정서적 지향점이 전근대적인 것에 있었다. 근대에 의해 파괴되는 전근대의 경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 전쟁이었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폭력이었다는 점에서 근대는 김수영에게 거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근대의 체험을 통해 김수영은 근대를 거부하는 일의 불가능성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 후 그는 근대 자체를 완성함으로써 그 근대를 벗어나는 일을 삶의 방식으로 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자기부정의 정신이었다. 자신 및 현실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인이 되어야 했고 근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의 속도를 따라가야만 했다. 그러나 김수영의 이러한 시적 행동은 근대 자체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대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대는 출발에서 죽는 것을 영예로 안다(「비」)”는 진술이나 “문명을 아는 자는 그 문명을 차버린다(「미스터 리에게」)”는 진술은 전쟁으로 현상한 폭력의 경험이었던 근대를 벗어나는 길이 그 근대를 완성하는 것에 있음을 자각한 후의 발언이다. 이를 실행한 김수영의 시가 과거를 부정하는 망각으로서의 모더니즘이다. 근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근대를 부정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 그가 추구했던 근대 완성의 주체는 철저한 개인이었다.

개인주의적 시 세계를 넘어서는 계기를 김수영에게 준 것은 4·19의 경험이었다. 김수영은 4·19를 겪으며 공동체의 힘으로 근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 시기의 시적 주체는 ‘우리’이다. 이를테면 시적 자아가 1950년대의 개인적 자아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아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그에게는 일종의 행복의 경험이었는데, 그는 곧 4·19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다시 ‘나’라는 개인의 시적 주체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가 혁명의 정신을 완전히 불신하게 된 것은 아니다. 정치적 혁명에는 좌절했지만 그에 대비되는 존재의 혁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의 일차적 목표가 정치에 있음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1960년 6월 16일의 일기에 나타나듯이 고독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혁명은 시적 혁명이 된다. 이로부터 김수영이 지향하는 두 가지 세계가 나타난다. 하나는 정치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시를 통한 존재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세계이다. 이것을 주체와 대상이 명확해진 상태라고 해도 될 것이다. 둘을 합해서 말한다면 정치적 변화는 고독한 주체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개인의 고독한 혁명이 개인주의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이 시기 김수영 시 세계의 큰 변모가 있다.

5·16 쿠데타는 김수영에게는 다시 한번 현실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것은 그가 1950년대 내내 추구했던 속도주의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역설의 경험이었다. 그는 5·16 직후 「신귀거래」 연작을 통해 ‘풍자와 해탈’의 관계에 대한 획기적 인식을 보여주는데, 풍자는 삶에의 몸담음을, 해탈은 삶으로부터의 초월을 가리키지만, 그 해탈은 풍자를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그의 시는 말하고 있다. 풍자가 삶에의 몸담음이고 그 삶이 일상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가 들어간 영역은 일상이었다. 그가 일상으로 들어간 것은, 그의 말을 빌리면, ‘의미를 꺼안고 들어가서 의미를 초월하는 삶의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일상에 집중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근대의 시간을 구성하는 모든 삶을 철저하게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일상이 단선적이고 발전적인 역사관에 의해 선택되고 배제되는 현실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뒤엉켜 시간을 구성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근대에 대한 김수영의 인식이 공존의 역사관으로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일상은 어떤 단일한 목표로 수렴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 그 자체를 크게 맴돌면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수영 초상(1955)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죽음'과 '사랑'에 대한 김수영의 인식이다. 그는 죽음과 사랑의 상호성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사랑은 삶의 소음, 죽음은 그 삶을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새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김수영이 일상에 주목하는 행위는 곧 무수하고 다양한 소음으로 가득 찬 현실을 사랑으로 되살려내는 행위이고, 그를 통해 단선적 근대 담론에 대항한 행위는 억압적 근대를 소멸시킴으로써 새 현실을 생성하는 근대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이다. 사랑과 죽음의 동시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테면, 김수영이 일상에 집중하는 행위는 그 일상에 대한 사랑과 관련되고, 그를 통해 일상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한 것이었던 셈이다. 풍자를 통해 해탈로 나아가려 한 행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주제는 역사이다. 1940년대에 그의 시에서 나타난 역사가 '廟廷(묘정)'이나 '孔子(공자)'로 상징되는 전통으로서의 유교적 역사라면 이 시기에 그가 복원하는 역사는 못나고 혼란스러운 민중의 역사이다. 「거대한 부리」가 잘 알려진 시라면,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시는 「현대식교량」이다. 이 시에서 시간은 젊음과 늙음이 분간 없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때의 시간은 모든 존재들이 공존하는 영원성으로서의 시간인 셈이다. 이것은 역사의 복원을 가능케 한 정치적 무의식의 공간적 시간이기도 하다. 무의식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김수영에게 역사는 과거와 전통을 실현하는 미래가 된다. 이 미래는 물론 남아버린 개인의 영역을 현실에 대한 사랑을 통해 떼어버리고, 말하자면 죽음으로 건너뛰어서, 근대 이후의 새 삶을 만들어내는 미래이다.

이것을 내용과 형식으로 보여주는 시는 「풀」이다. 풀의 쓰러짐과 일어남은 김수영이 그토록 강조하는 바의 죽음과 생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시의 본질이 죽음과 사랑의 대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독자들은 「풀」에서 그 말이 미적으로 실현된 것을 보게 된다.



박수연(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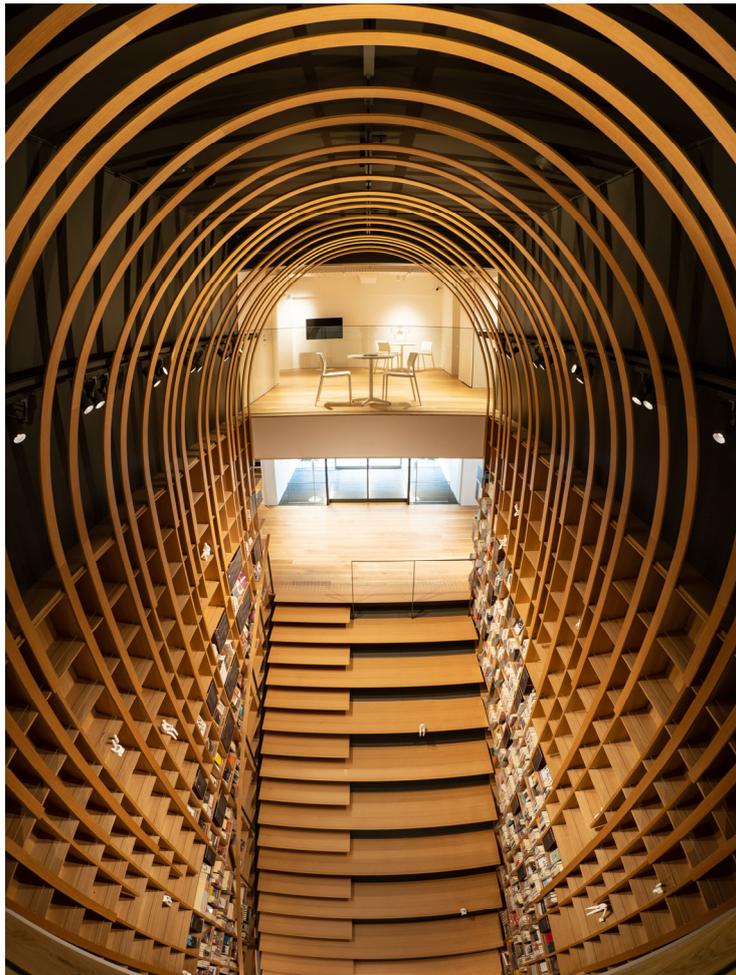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는 『문학들』, 『국민, 미, 전체주의』 외 다수가 있다. 현재는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pinepond1@cnu.ac.kr

와세다의 숲에 펼쳐진 무라카미 원더랜드, 와세다 대학 국제문학관

강소영(KPIPA 일본 코디네이터)

2021. 12.



터널 모양의 계단 책장

지난 10월 무라카미 하루키(72)의 작품 세계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와세다 대학에 문을 열었다. 공식 명칭은 '와세다 대학 국제문학관'. 현지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로 통한다. 2019년 무라카미가 모교인 와세다 대학에 친필 원고, 책, 음반 등 약 1만여 점의 소장품을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와세다 대학이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 연구와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삼고자 조성한 곳이다. 위치는 와세다 대학 재학 시절 무라카미가 영화 시나리오를 탐독하기 위해 즐겨 찾았던 연극박물관 옆 4호관. 2020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고가 리모델링을 맡고, 유니클로의 모기업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의 회장 겸 사장인 야나이 다다시가 130억에 달하는 개축 비용 전액을 쾌척했다. 노벨문학상 발표 시즌이면 일본 열도가 수상을 염원해 마지않는 작가의 기념관은 어떤 인상일까? 개관과 동시에 하루키스트들의 순례지가 된 이 특별한 라이브러리의 모습을 담아봤다.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

맨 오른쪽부터 건축가 쿠마 켄고,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 겸 사장,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출처. 마이니치 신문, 사사키 준이치 촬영)

일상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터널

지난 9월에 열린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쿠마 켄고는 2년 전 자신이 평소 경외하던 작가로부터 직접 설계 의뢰를 받았을 때 엄청난 부담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보통의 건물에 무라카미 문학의 이미지를 입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무라카미의 많은 작품이 일상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터널 구조를 생각해냈다고 한다.



건물 외관

실제로 본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의 첫 인상은 다른 세계에서 날아온 하얀색 상자가 캠퍼스 한 가운데 특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고풍스러운 주변 풍경과는 이질적인 지상 5층의 건물. 그것을 터널 모양의 목제 오브제가 둘러싸고 있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 목제 오브제를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지하 1층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계단 책장과 마주하게 된다. 계단 양쪽에는 2층 높이의 책장이 아치 모양의 천장 구조물과 이어져 있어 마치 터널이나 동굴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가자 평범한 일상에 미묘하게 나 있는 틈새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는 무라카미 문학의 감각이 느껴진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책장에 꽂힌 책들도 자연스럽게 시선에 들어온다. 책장에 꽂혀 있는 1,500권의

도서는 기획 전시의 일부로 테마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체된다. 책의 선정과 진열은 북디렉팅으로 유명한 BACH에서 맡았다. 현재 계단 책장의 전시 테마는 「현재부터 미래로 연결하고 싶은 세계 문학 작품」과 「무라카미 작품과 그 연결 지점」이다. 그 중 「무라카미 작품과 그 연결 지점」展은 무라카미 작품 속 키워드에서 파생된 다양한 의미를 세계 각국의 도서로 보여주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키워드의 난이도가 평이해지도록 배치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계단 책장과 계단 책장에 전시된 책들



『1Q84』의 리틀 피플을 연상시키는 피규어들

계단 책장 곳곳에는 『1Q84』의 리틀 피플을 연상시키는 피규어들이 이곳이 자신들의 세상인 양 여유롭게 독서를 하고 있었다. 그들 틈에 섞여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들다 문득 깨닫는다. 내가 계단 책장을 지나 어느 새 두 개의 달이 뜨는 무라카미 원더랜드에 들어와 있음을. 문학관 자체가 무라카미 작품 세계를 깊이 체감하도록 설계된 장치였던 것이다.

지하 1층,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공간

계단에서 '먹는다'의 키워드로 분류된 책장을 살펴보고 있자니 어디선가 그윽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게 한다. 커피 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 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 '오렌지 캣'이 있다. '오렌지 캣'이라는 이름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 전 도쿄에서 아내와 함께 운영했던 커피숍

‘피터 캣’에서 따왔다고 한다. 카페 라운지에는 ‘피터 캣’에 놓여 있던 그랜드 피아노와 무라카미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를 연극으로 상연했을 때 사용했던 무대 장치도 있었다.



카페 ‘오렌지 캣’



‘피터 캣’에서 실제 사용했던 그랜드 피아노, 『해변의 카프카』 연극 상영 때 사용한 무대 장치

카페 옆에는 무라카미의 서재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레코드 플레이어와 의자는 무라카미가 기증한 것이고 나머지 가구와 소품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업실에 있는 것과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구했다고 한다. 입실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작업실에서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즐거웠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서재

1층, 50개 언어로 번역된 3,000권의 무라카미 작품과 개인 기증 자료로 채워진 아카이브

1층 갤러리 라운지에는 무라카미가 작가로 데뷔한 197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작품이 연대순으로 전시돼 있다. 모두 무라카미가 기증한 책으로 대부분 초판본이다.

반대편 책장에는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무라카미 작품들을 모아놓았다. 무라카미의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무라카미가 기증한 초판본 전시,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무라카미 작품을 모아놓은 책장

갤러리 한 가운데에는 기다란 책상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된 책을 꺼내서 읽을 수 있게 해 놓았다. 갤러리 벽에는 무라카미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양 사나이가 앉아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한다.



1층 갤러리 전경, 갤러리 벽면의 무라카미가 직접 그린 양 사나이

1층에는 갤러리 라운지 말고도 오디오룸이 있어 무라카미가 평소 즐겨 듣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오디오 시스템의 선정과 세팅은 오디오 평론가이자 전 《스테레오 사운드》 편집장 오노데라 코지가 담당했다. 재즈 애호가로 알려진 무라카미의 오디오룸답게 색소폰 연주, 소니 롤린스 등 다양한 재즈 레코드가 눈에 띄었다.



오디오룸

2층, 폭넓은 문화 교류와 발신이 이루어지는 공간



스튜디오와 대형 연구실

1층이 연구를 위한 공간이라면 2층은 교류와 발신의 공간이다. 2층에는 음향 설비를 갖춘 스튜디오가 있는데 무라카미가 2018년부터 DJ를 맡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무라카미 RADIO'의 스튜디오와 비슷하게 꾸며 놓았다고 한다. 스튜디오 바로 옆에는 대형 연구실도 있어 문학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다.



2층 전시실 「건축 속의 문학, 문학 속의 건축」展

2층의 전시실에서는 개관을 기념하여 「건축 속의 문학, 문학 속의 건축」展이 열리고 있었다(2022년 2월 4일). 와세다 대학 캠퍼스 구 4호관이 와세다 대학 국제문학관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도면과 모형을 통해 들여다보는 전시다. 이곳에서는 앞으로도 무라카미 문학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내용의 기획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긍정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간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기념관을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무라카미가 와세다 대학의 건립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위기의 시대에 어떠한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개관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더라도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일이 소설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와세다 대학 국제문학관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긍정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신선하고 독특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 정문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는 엄숙한 분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활기찬 공간이다. 전시된 도서는 모두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과 무라카미 문학과 문학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배움은 호흡하는 것과 같다는 무라카미의 평소 소신대로 숨 쉬듯 자연스럽게 문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지하 1층 외부 전경

젊은이들의 방향과 상실감을 섬세한 감성과 리드미컬한 문체로 그려냈던 무라카미도 어느덧 칠순을 넘긴 노작가가 되었다. 목소리가 없는 작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작가라며 한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무라카미 하루키. 그의 '시대 공감'이 깃들여 있는 와세다 대학 국제문학관 정문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지었다는 모토가 새겨져 있다.

『物語を拓こう、心を語ろう』
(Explore Your Story, Speak Your Heart)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의 모토



강소영(KPIPA 일본 코디네이터)

일본 수출코디네이터. 현지에서는 일본그림책교류회(日韓絵本交流会)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문화 이벤트 기획을 하고 있다.

lunakang79@naver.com

2021년 해외 도서상 결산

안성학(KPIPA 미국 코디네이터, 미국 파피펄 대표)

202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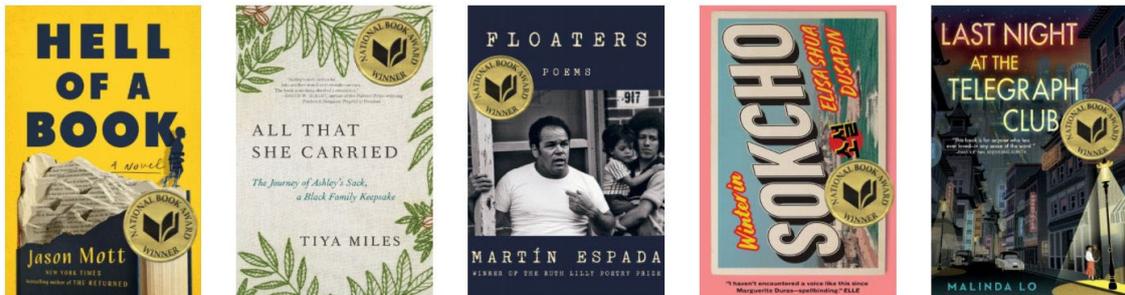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도서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해였다. 올 초부터 들려온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When You Trap a Tiger)』의 작가 태 켈러(Tae Keller)의 뉴베리상(John Newbery Medal) 수상 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책이 유명 도서전의 상을 받았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작가들의 저서는 그 인기와 함께 해외 여러 시장에서 출간되고 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간다. 2021년을 마감하며 미국과 유럽의 유명 도서전에서 수상한 도서를 살펴보면서 올해의 출판 경향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전미도서상

National Book Awards

전미도서재단(National Book Foundation)이 지난 11월 올해의 전미도서상 최우수 작품을 발표했다. 한국계 시인 겸 번역가인 돈 미 최(Don Mee Choi)가 시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도서상에는 모두 415권의 소설 작품과, 679권의 비소설 작품, 시 290 작품, 번역 문학 164 작품, 그리고 청소년 문학 344 작품이 출품되었다.



2021년 전미도서상 최우수 작품들

최우수 소설로는 제이슨 모트(Jason Mott)의 『지옥 같은 책(Hell of a Book)』이 선정되었다. 첫 번째 소설 『더 리턴드(The Returned)』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저자는 이번 수상작 『지옥 같은 책』을 통해 흑인 작가가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홍보하면서 겪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을 다뤘다. 흑인을 향한 경찰 총격 사건이 반복되지만 미미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국가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다.

비소설 부문에는 티야 마일스(Tiya Miles)의 『그녀가 들고 온 모든 것: 흑인 가족 유품, 애슐리의 자루의 여정(All That She Carried: The Journey of Ashley's Sack, a Black Family Keepsake)』이 선정되었다. 역사 교수이자 하버드 대학교 찰스 워렌(Charles Warren) 미국사 연구 센터 소장인 저자는 1850년대 흑인 노예 매매로 어린 딸이 팔려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흑인 여성과 그 후손들의 아픈 역사를 들려준다.

시 부문에는 풀리처상 결선 진출작 『시의 공화국(Republic of Poetry)』의 저자인 마틴 에스파다(Martín Espada)의 『플로터스(Floaters)』가 선정되었다. 이 작품의 제목인 “플로터스(떠있는 사람들)”는 미국의 일부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건너려다 익사하는 남미 이민자를 일컫는 말로, 인종차별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절한 개인사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번역 문학 수상작으로는 번역가 아니사 아바스 히긴스(Aneesa Abbas Higgins)가 영어로 번역한 엘리자 수아 뒤사팽(Elisa Shua Dusapin)의 프랑스어 원작 『속초에서의 겨울(Winter in Sokcho)』이 차지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파리와 서울, 스위스에서 자란 저자 엘리자 수아 뒤사팽은 첫 작품 『속초에서의 겨울』로 로베르 발저상(Prix Robert Walser)과 데포르주상(Prix Régine Desforges)을 받았으며 6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이 작품을 번역한 아니사 아바스 히긴스(Aneesa Abbas Higgins)는 PEN 번역상을 수상한 번역가이기도 하다. 저자는 남과 북의 경계에 있는 관광지 속초의 황량한 겨울을 바탕으로 문화와 국가의 정체성에 균열이 생긴 고독한 이방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덧없는 혈연 관계를 그렸다.

청년 문학 수상작으로는 말린다 로(Malinda Lo)의 『텔레그래프 클럽에서의 마지막 밤(Last Night at the Telegraph Club)』이 선정되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맥카시즘(McCarthyism)이 한창이던 1950년대 중국계 미국인 소녀 릴리(Lily Hu)와 백인 소녀 캐스(Kathleen Miller)의 러브 스토리를 그렸다.

올해 수상작의 공통점은 비백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는 것이다. 소설과 비소설 당선작은 흑인들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 역사를 그렸다. 시 부문 당선작은 남미 이민자의 모습을 다루었다. 번역 문학 당선작은 한국계의 다국적자이자 다인종자의 정체성 문제를 그렸으며, 청년 문학 당선작은 아시안과 성 소수자를 이야기했다. 작년과 올해 미국에서 화두에 올랐던 주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작년 5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있었던 경찰에 의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으로 인해 #흑인생명은소중하다(#BlackLivesMatter)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영향으로 출판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Diversity)'를 담은 책'을 출판하려는 노력이 강해졌다. 편집자는 다양한 인종과 주제, 소재를 찾아 나섰고, 백인이 아닌 작가들의 작품이 전보다 많이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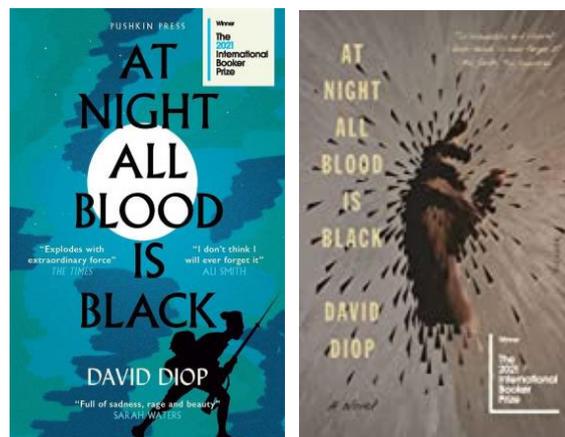


“흑인 인권도 소중하다”는 슬로건이 걸린 출판사 웹페이지

또한 팬데믹으로 아시안 증오 범죄가 크게 증가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아시안 증오 반대 운동(#StopAsianHate)이 확산되었다. 이 외에도 성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도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이 미국 내의 큰 사건들을 주제로 한 도서가 올해 전미도서상을 휩쓸었다.

국제 부커상 International Booker Prize

올해의 국제 부커상은 프랑스 작가 데이비드 디오편(David Diop)의 2018년도 작품 『소울 브라더(Frère d'âme)』의 영국 번역 출판작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At Night All Blood Is Black)』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 출간된 후 바로 10개의 주요 도서상 후보로 올랐으며, ‘고등학교이 뽑은 공쿠르 상(Prix Goncourt des Lycéens)’을 받았다. 또한,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여름 독서 목록’에 올랐으며, LA타임스 도서 소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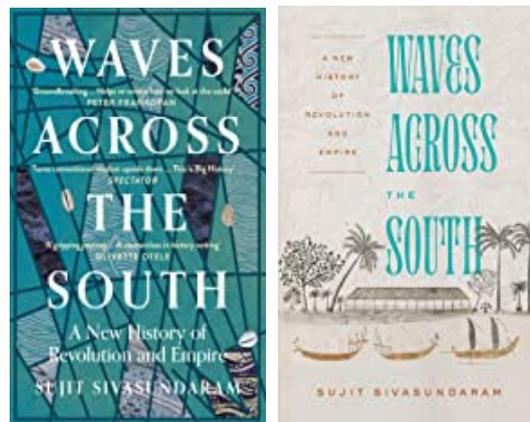
수상작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의 영국과 미국판 표지

저자는 이 작품에서 제1차 세계 대전 중 서부 전선에서 세네갈의 프랑스 식민지 부대인 티라예르(Tirailleur)군 소속으로 프랑스를 위해 싸운 세네갈인의 이야기를 그렸다. 멀리 고향을 떠난 청년이 자신과 관계없는 전쟁에 나가 죽음을 목격하고 광기에 빠지는 과정을 묘사했다. 세네갈계인 저자의 증조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한 것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영국 아카데미 도서상

The British Academy Book Prize for Global Cultural Understanding

지난 10월에 발표된 올해의 영국 아카데미 도서상 글로벌 문화 이해상은 수짓 시바순다람(Sujit Sivasundaram)의 『남쪽을 가로지르는 파도: 혁명과 제국의 새로운 역사(Waves Across the South: A New History of Revolution and Empire)』가 수상했다.



수상작 『남쪽을 가로지르는 파도』의 영국과 미국판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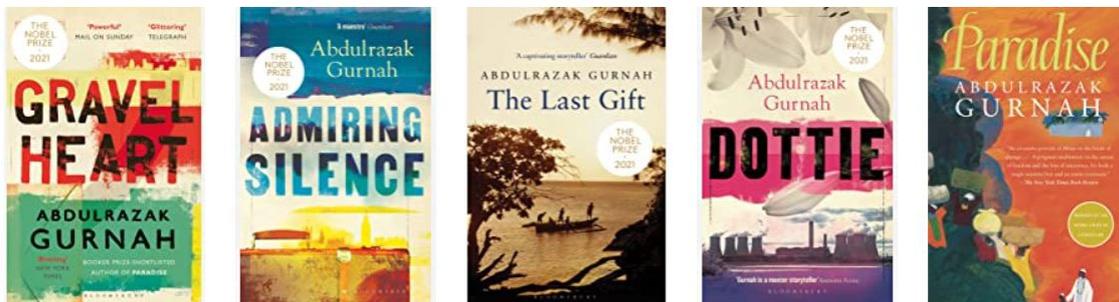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지금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세계사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이번 작품을 통해 유럽과 대서양이 아닌 남쪽을 중심으로 대영제국의 역사를 재해석했다. 심사위원들은 ‘과거 대영제국의 역사가 인도양과 태평양의 토착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수상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배자 입장에서 쓴 역사가 아닌 피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노벨문학상

Nobel Prize in Literature

지난 10월 발표된 2021년 노벨문학상은 영국에서 활동한 탄자니아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압둘라자크 구르나(Abdulrazak Gurnah)에게 돌아갔다. 1948년 잔지바르에서 태어나 1964년 잔지바르 혁명 때 18세 난민으로 영국에 온 저자는 대학에서 영어와 탈식민주의 문학을 가르쳤다. 그동안 여러 작품을

통해 식민주의와 난민의 운명을 타협하지 않고 동정심 있게 그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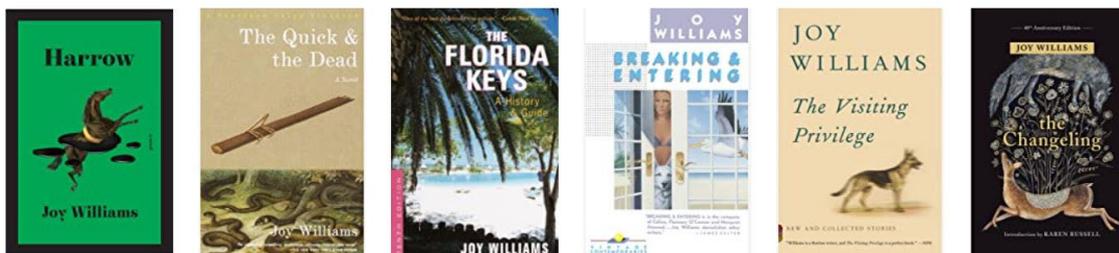
수상자의 출간작들

의회도서관 미국 소설상

Library of Congress Prize for American Fiction

『해로우(Harrow)』 등 다수의 단편소설과 5편의 소설을 집필한 작가 조이 윌리엄스(Joy Williams)가 지난 9월에 열린 전국도서전(National Book Festival)에서 의회도서관의 미국 소설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구겐하임 펠로우십과 리 단편소설상(Rea Award), 미국 예술 문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의 슈트라우스 리빙상(Strauss Living Award)을 수상하기도 했고, 풀리처상과 전미도서상, 전미도서평론가협회의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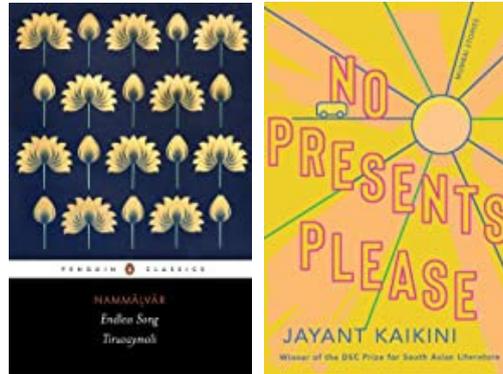
수상자 조이 윌리엄스의 출간작들

미국 문학 번역가 협회상

The American Literary Translators Association Awards

지난 10월에 발표된 미국 문학 번역가 협회의 2021년 루시엔 스트라이크 아시안 번역상(Lucien Stryk Asian Translation Prize)은 아르카나 벤카테산(Archana Venkatesan)이 번역한 인도 타밀의 작가 남마바르(Nammālvār)의 『끝없는 노래(Endless Song)』가 차지했다.

『끝없는 노래』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 하나인 9세기 타밀 시인 남마바르(Nammālvār)의 시를 번역가 아르카나 벤카테산이 30년 넘게 작업해 출간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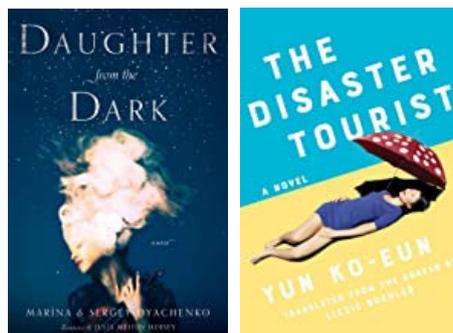
수상작 『끝없는 노래』와 『선물 금지』

또한 한국계 번역가 안톤 허(Anton Hur)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올해의 전국 번역상 산문 부문(National Translation Award)의 수상작은 테자스니 니란자나(Tejaswini Niranjana)가 번역한 자얀트 카이키니(Jayant Kaikini)의 『선물 금지: 뭄바이 스토리(No Presents Please: Mumbai Stories)』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을 물려받은 겸손한 가게 주인부터 방송에 나가려고 하는 발리우드 스타트 아티스트에 이르기까지 인도 뭄바이의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로제타상

Science Fiction and Fantasy Rosetta Awards

11월에 발표된 올해의 SF 및 판타지 로제타상(Science Fiction and Fantasy Rosetta Awards)에서 '최고의 SFF 번역 작품 장편 부문'에 『어둠 속의 딸(Daughter From the Dark)』이 수상했다. 이 부문의 후보작으로는 리지 불러(Lizzie Buehler)가 번역한 한국 작가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The Disaster Tourist)』이 올랐다.



수상작 『어둠 속의 딸』과 후보작 『재해 관광객』

또한, '최고의 SFF 번역 작품 단편 부문'에 우 구안(Wu Guan)의 「로진(Roesin)」이 수상했으며 소피 보맨(Sophie Bowman)이 번역한 한국 작가 김보영의 「고래 눈이 내리다(Whale Snows Down)」가 후보에 올랐다.

지금까지 소개한 올해의 여러 도서상 수상작들은 대체로 백인 위주의 시선이 아닌 흑인과 남미인, 아시아인, 난민, 식민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이 위주를 이뤘다. 팬데믹과 흑인 인권 운동, 아시아인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소수자들의 인권과 삶이 많이 부각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많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작품의 경향과도 같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또 어떠한 주제와 소재를 가진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이게 될지 기대가 된다.

안성학(KPIPA 미국 코디네이터, 미국 팝피펍 대표)

미국 아마존의 자회사인 오더블과 킨들 코믹솔로지에서 디지털 오디오북과 코믹북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팀을 이끌었고, 지금은 한국의 도서와 웹툰, 웹소설을 미국 시장에 번역 출판하고 있다.

contact@poppypub.com

출판
N